



Global Market Report 14-010

2014.05.20

유럽 경기전망 및 산업별 기상도

- 서유럽(1)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I . 요약	1
II . 독일	3
III . 영국	25
IV . 프랑스	46
첨부 1. 국가별 14년 경제 기상도 및 특이사항	70
첨부 2. 국가별/산업별 경기전망 및 수출 유망품목	71

요 약

2014년 선진국의 경기회복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장기불황을 겪은 유럽에게도 올 한해가 전환점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국 정부나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유명 분석기관의 전망에서 볼 수 있듯 유로존의 불황 탈출은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4년여간 계속된 재정위기의 여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별로 달랐던 만큼 회복 속도나 정도 역시 상이할 전망이다.

일단 유로존의 독보적 우등생인 독일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 소비, 수출을 바탕으로 탄탄한 체력을 회복해 가는 한편,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비로소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가 확산될 경우 강력한 뇌관으로 지목되던 프랑스나 전통적인 서유럽의 강자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높은 실업률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의 공장’으로 성장을 꾀하던 동유럽은 경기침체에 따른 서유럽의 수요 급감으로 고전할 수밖에 없었으나 유로존 경기회복과 EU 기금 활용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EU 회원국 이면서도 파운드화를 고수중인 영국이나 EU와 별도 노선을 걷는 스위스는 유로존에 비해 상당히 선전하면서 올해에는 유럽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확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모처럼의 유럽 경기회복 조짐은 對유럽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했던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별로 재정건전성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高실업률 장기화에 따른 소비회복 지연, 경제 개혁 미진에 따른 생산성 회복 미흡, 각종 정치적 이슈로 인한 사회갈등 등이 회복 정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한편, 재정위기 동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전반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별 효자산업의 재도약 여부가 경기활성화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산업별 기상도에는 차이가 있어 향후 회복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및 부품) 재정위기의 직격탄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냈으나 2014년에는 신차 수요 회복이 기대되면서 완성차는 물론 부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 상승에 따른 부품 교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 AS부품의 수출 전망이 밝은 편이다.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지원 축소로 고전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EU의 친환경정책 고수를 통해 재부상할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과의 분쟁으로 얼룩진 태양광발전 뿐 아니라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 여부가 관건인 상황에서 친환경, 고에너지 효율 제품 및 설비가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전기전자) 세부 부문별로 편차가 큰 가운데 기술혁신 제품과 범용제품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스마트기기, 기술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제품 등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유럽 등 EU기금을 통한 통신망 인프라 확충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광케이블을 비롯한 설비 관련 제품의 수요가 시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의약·의료·바이오) 대표적인 노령화 사회인 유럽은 이 분야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 왔는데 복제약품, 각종 진단용 영상기기를 필두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유럽의 경우 EU 기금을 활용한 시설 현대화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 섬유·의류) 화학 분야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생산 증가로 각종 원부자재 수요확대가 기대되며, 대부분의 한국제품은 발효 3년을 맞는 한-EU FTA로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시장 공략의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섬유·의류 분야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산업용, 기능성 제품으로의 시장 판도 변화가 눈에 띈다.

이 외에도 기계, 식음료, 항공우주, 건설, 철강, 물류, 스포츠·레저 등의 분야가 올 한해 유럽 경기를 지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국가별/산업별 경기회복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이에 맞는 시장진출 전략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독일]

I. 2014년 독일 경기전망

□ 최근 경제 동향

- **(GDP)** '13년 GDP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0.5%보다 소폭 낮은 0.4% 기록
 - 연중 투자 및 민간소비·공공지출 증가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유지했으나, 3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낮은 0.3%에 그친 결과
 - '13. 4분기는 수출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며 전분기 대비 0.4% 증가
- **(수출입)** '13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0.2%, 1.1% 감소 기록
 - 非유로존 EU 국가로의 수출은 2%의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유로존 국가 및 제3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1.0%, 0.5% 감소
 - 수입의 경우 非유로존 EU 국가와 유로존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3.1%와 1.6% 증가한 반면, 기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0% 감소하여 아직 산업수요 회복이 더딘 편으로 파악됨.
- **(무역수지)** '13년 전년 대비 4.8% 증가한 1,989억 유로로 '07년도 1,935억 유로 이후 사상 최대치 기록
- **(실업률)** '13. 12월말 기준 6.7% 기록
 - '14. 1월 기준 실업률은 7.3%, 총 실업자 수는 전월 대비 26만3,000명이 증가한 314만 명으로 집계
 - 이는 겨울 휴지기 계절적 실업자 수의 증가로 인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물가상승률)** '13. 12월 물가상승률은 1.4%
 - '14. 1월 물가상승률은 1.3%로 비교적 낮은 수준 유지
 - 이는 석유제품 가격 하락(전년동기 대비 5.2% 하락)이 주요인인데 전력이(+25%), 화석연료(+24%), 식료품(+3.6%) 등이 증가세를 보이며 감소분을 상쇄함.

- (산업생산) 유로존 지역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불안 속에서도 '13. 3분기 이후 상승세 지속
 - 특히 자동차와 기계 등 독일 기간산업의 해외 수주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
 - 향후 미국과 더불어 유로존 경기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산업 생산 역시 소폭 회복될 전망

<독일 월별 산업생산>

(단위: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12년	1월	5.6	0.7
	2월	3.2	0.1
	3월	-0.5	1.2
	4월	-1.1	-2.1
	5월	-7	1.8
	6월	3.8	-1
	7월	2	1.5
	8월	-1.1	-0.6
	9월	-7.6	-1.4
	10월	3.9	-1.6
	11월	-3.1	-0.1
	12월	-9.6	1
'13년	1월	-0.7	-0.7
	2월	-4.8	0.8
	3월	-8.8	0.4
	4월	8.2	0.9
	5월	-4.4	-1.3
	6월	-0.3	1.9
	7월	1.5	-1.4
	8월	-2.7	2.2
	9월	4.6	-1.0
	10월	1.6	-1.1
	11월	1.1	3.0
	12월	5.3	-0.5

자료원: 독일 연방통계청 (* 동 통계는 월별로만 집계)

- (설비투자) '13년 상반기 이상기후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세 이후 3분기에 접어들면서 기계 및 자동차분야 설비투자 회복세가 긍정적으로 작용

- 4분기 수치는 발표 전이나 3분기 대비 뚜렷한 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분기별 설비투자>

(단위: %)

분류		'12년				'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설비 투자	전년동기 대비	1.6	-4.1	-6.6	-6.2	-8.9	-1.1	0.2	0.0
	전분기 대비	-0.4	-3.7	-0.6	-0.3	-1.4	0.5	0.1	1.4

자료원: 독일 연방통계청, '14. 3월 기준 최신 수치

- **(소매판매)** 독일유통협회(HDE)에 따르면 '13년 독일 내 소매 매출은 4,332억 유로로 전년 대비 1.1% 증가, '09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
 - 이 중 식료품 유통이 약 2,000억 유로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 매출 규모는 '13년 기준 387억 유로(총 소매시장 중 8.9%, 전년 대비 17% 증가)로 소비패턴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남.
 - **(소비지수)** '14. 2월 GfK 소비지수는 1월 기준 7.7 포인트에서 소폭 상승한 8.2 포인트로 6년 만에 최고치 기록
 - 이는 기대치 7.6 포인트를 크게 상회, 고용시장 안정, 임금상승,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률 등이 소비 견인 요인으로 작용
 - **(영업환경지수)** '14. 1월 Ifo 영업환경지수*는 지난 '13. 12월 109.5 포인트에서 소폭 상승한 110.6 포인트로 기대치 110 포인트를 상회하며 2년 반 만에 최고치 기록
 - 최근 신흥국 불안에 따라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 매월 Ifo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로 평균 약 7,000여건의 기업 설문을 통해 작성되며 2005년 기준 지수가 100임. 역대 최고 수치는 '11. 2월 115.4 포인트, 최저 수치는 '08. 12월 84.6 포인트임.

<독일 최근 경제지표 동향>

(단위: 억 유로, %)

구분	2011	2012	2013
GDP 성장률	3.0	0.7	0.4
재정수지(GDP 대비)	-0.8	+0.1	-0.1
공공부채(GDP 대비)	80.0	81.0	81.1
수출금액(증감률)	10,602(+10.5)	10,958(+3.4)	10,938(-0.2)
수입금액(증감률)	9,025(+11.9)	9,059(+0.4)	8,962(-1.1)
실업률	7.1	6.7	6.7
물가상승률	2.3	2.0	1.5

*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연방노동청(BA)

□ 2014년 경기전망

○ (GDP) 성장률 1.8% 전망

- '14. 2월 독일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7%에서 1.8%로 소폭 상향 조정
- 이는 '13년 성장률 0.4%를 훨씬 웃돌고 유로존 평균(1.2%, IMF 전망)을 상회하는 수치로 안정적인 회복세가 전망됨.
- 일부 경제전문가는 내수 2.1%, 수출 4.1% 증가 전망에 근거, 정부 전망보다 높은 2% 이상의 성장도 기대

○ (재정건전성) 독일정부는 '14년 재정적자를 전년 220억 유로 대비 140억 유로 감축 예정

- 양호한 경기와 고용안정세 지속에 힘입어 '14년 부채는 80억 유로, '15년 재정균형, '16년 재정흑자 목표 설정
- * 현 독일 대연정 정부는 공공부채 축소에 앞서 낙후된 도로와 탁아소, 학교 등에 대한 재정지출은 확대한다는 방침

○ (교역) 수출 4.1%, 수입 5.0% 증가 전망

- 미국과 일본의 경기호조 전망 및 유로존 경기 안정세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

- 신규 설비 중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실업률) 6.8% 전망경기회복 영향으로 총 실업자 수가 약 2만 명 감소한 293만 명, 실업률은 6.8%로 전망
- (설비투자) 2년간의 감소세 이후 4%에 이르는 상승세 전망
 - 보다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기대됨에 따라 설비투자 역시 4.6%의 성장이 전망됨.
 - 단, 생산시설이 최대한 가동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장세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전망
- (민간소비) 2.7%로 예상되는 평균소득 증가 효과로 민간소비는 1.4% 증가할 전망
- (물가상승률) '13. 11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경기회복에 따른 소폭의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 1.8%에 이를 전망
 - * '13.11.7일 기준 0.5%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25%로 인하
- (소매판매) 독일유통협회(HDE)에 따르면 '14년 예상 매출이 총 4,397억 유로 규모로 1.5% 성장 예상
 - 식료품 유통과 온라인 쇼핑 부문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
- (경기 호조요인)
 - 일부 재정위기국 경기회복 및 성장세 돌입에 따른 對EU 수출 호조세
 - 고용 및 임금 개선에 따른 소비 증가세 가속화
 -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동차를 비롯한 독일제품 판매 호조
 - 역대 최저 금리(0.25%) 등 EU 차원의 금융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주가 상승세 지속
 - * 독일 DAX지수는 5월 중 사상 최고치(8,160.14)를 경신한 데 이어, 사상 최초로 10,000 포인트 돌파 기대
 - 지난 2년 간 부진했던 투자 만회를 위한 설비투자 증가세

○ (경기부진 요인)

- 긴축의 정도는 완화될 전망이나 당분간 지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美 테이퍼링에 따른 일부 신흥국의 금융 불안, 특히 취약국 통화가치 급락에 따른 자본 유출 및 위기 확대 우려
-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 불안정에 따른 투자 감소 지속
-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으로 자본시장 내 투기 리스크 상존

□ 총론 및 특이사항, 시사점

- 독일은 고용, 물가, 소비, 수출 등 주요 경기지표가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재무부는 지난 2~3년간 부진했던 설비투자 수요 등 내수가 '14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유로존 경기회복에 따른 역내 수출 호전과 소비 및 투자 증가로 경제지표 개선 기대
- 美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신흥국 불안이 우려되고 있으나, 각국의 금융조치 하(예: 경제구조 개혁, 재정적자 축소 및 개선책, 금리인상 등의 통화 평가절하 방어 등)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주요 교역국인 중국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독일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전망

II. 2014년 독일 주요 산업별 기상도

1. 산업구조 개요

□ 산업 구조 개황

- 독일의 산업은 크게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농·임·어업으로 구성
 - '13년 기준 GDP 대비 부가가치창출 규모는 서비스업이 69%('12년 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이어 제조업(25.5%), 건설업(4.7%), 농·임·어업(0.8%) 순
 - * '12년의 경우에도 제조업 26.1%, 건설업 4.5%, 농·임·어업 1.0%로 순위는 동일

<'13년 독일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자료원: 독일 연방통계청

* 주: 각 산업별 부가가치창출 비중

- 세부 산업별 GDP 대비 부가가치창출에서는 '12년 기준 서비스업 부문 중 공공 서비스·교육·보건업이 1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유통·운송·숙박업(16%), 부동산(11.4%) 순
- 제조업 부문에서는 가공업이 단독 산업군으로서는 가장 높은 비중 (22.4%)을 차지

<독일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단위: %)

산업 구분	2009	2010	2011	2012
전 산업 분야	100	100	100	100
농업, 임업, 어업	0.8	0.8	0.9	1.0
제조업	27.9	29.7	30.8	30.6
- 건설업 외 제조업	23.4	25.3	26.2	26.1
· 광산, 광물 채굴	0.2	0.2	0.3	-
· 가공업	19.5	21.5	22.6	22.4
· 에너지공급	2.5	2.4	2.3	-
· 수자원 공급, 재활용 등	1.1	1.1	1.0	-
- 건설업	4.5	4.5	4.6	4.5
서비스업	71.3	69.5	68.3	68.4
- 유통, 운송, 숙박업	15.2	15.9	16.0	16.0
· 차량 정비보수 및 수리 관련 유통	9.5	10.1	10.2	10.2
· 운송, 물류	4.1	3.9	3.9	4.0
· 숙박업	1.7	1.8	1.8	1.9
- 정보통신	4.3	4.0	3.8	3.9
- 금융 및 보험서비스	5.0	4.5	4.4	4.0
- 부동산	12.4	11.8	11.4	11.4
- 기업 대상 서비스	10.9	10.6	10.5	10.7
· 자유직종/학술/기술서비스	6.1	5.8	5.8	-
· 기타 학술서비스	4.8	4.7	4.7	-
- 공공 서비스, 교육, 보건	18.6	18.1	17.8	18.0
· 공공 행정: 기타 서비스	6.4	6.3	6.2	-
· 교육, 학습	4.7	4.5	4.5	-
· 보건, 사회복지	7.5	7.3	7.1	-
- 기타 서비스	4.8	4.6	4.4	4.5
· 예술, 오락, 여가	1.5	1.4	1.4	-
· 기타 서비스	3.0	2.8	2.7	-
· 가정 서비스	0.3	0.3	0.3	-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 주: 각 산업별 부가가치창출 비중, 2014. 3월 기준 최신 자료

□ 특징

-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로 고용인구 5명 중 1명이 수출산업에 종사
 - 한국과 유사하게 자원빈곤국으로 특히 에너지 분야 수입의존도가 높음.

- 기술과 품질 면에서 최고의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유통하는 전략을 추구하며 신기술로 공급을 주도
- 총 기업의 99.7%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중소기업 층이 두터움.
 - 중소기업연구소(IfM)에 따르면, 독일 내 중소기업의 수는 '11년 기준 전체 과세대상기업(총 372만 개)의 99.6%인 약 370만 개로 총 기업 매출의 35.9%, 전체 고용의 78.9% 점유('14. 1월 기준 최신 수치)
 - * 독일에서는 종업원수 500명 및 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함.

2. 산업별 기상도 및 유망품목

가. 자동차/자동차부품

□ 최신 동향

- '13년 독일 승용차 신규 등록 수는 약 295만 대로 전년대비 4.2% 감소
 - '13. 12월 독일 신차 등록 수는 총 21만 5,300대로 전년동기 대비 5% 증가
-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13. 10월 누계 기준 독일 내 플러그 인 포함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수는 총 6,200대로 전년동기 대비 81%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 기록
- '13년 자동차부품 시장은 자동차 시장의 75%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29만 3,000명(자동차 시장의 38%)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 자동차부품 시장의 총 매출은 701억 4,1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해외 매출이 1/3(전년 대비 +3.3%)을 소폭 상회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에 따르면 '12년 자동차부품 시장의 총 매출은 684억 유로(내수 438억, 수출 246억)로 최고치를 기록한 '11년 대비 1% 감소
 - 유로존 경기둔화로 해외 매출 비중이 전년 35.9%와 거의 유사한 35.95%를 기록, 내수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전문가 진단

- 독일자동차연구센터(CAR: Center Automotive Research)/자동차)
 - 두덴회퍼(Ferdinand Dudenhoeffer)센터장은 '14년 독일 승용차 시장이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독일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평균 사용연수 8.9년 이상의 노후 차량으로 교체 수요 발생 예상
 - 현재 사상 최저금리로 차량 구입비 조달 부담이 완화되어 구매 유도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K사(진출기업/공조시스템)
 - '14년 독일 시장은 호조세일 것으로 낙관
 - 특히 독일 내 주요 완성차 메이커와 장기계약을 체결, 2~3년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 추진 후 안정적인 부품 공급이 예상됨.

□ 2014년 전망 : 보통

- 현재의 회복세가 연내 지속될 경우 신차 판매가 300만대에 이를 전망
 - 올해 16종의 전기자동차 모델이 출시될 예정으로 '14년 신규 전기차 등록수가 20,000여 대로 전망되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전환기에 돌입할 전망
 - Roland Berger 컨설팅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15년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90억 달러, 유럽 시장은 3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독일 시장 내 준중형급 및 SUV 차량의 선호도 지속
 - 전기차 시장 역시 잇단 신규 모델 출시로 성장세 기대
-

- 가격이나 연비 등에서 기존 디젤차 등과의 차별화 및 다양한 모델 공급이 중요
- 글로벌화로 아시아와 미국 등 독일 이외의 해외시장 중요성 증대
 - 독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사의 부품 소싱 확대를 활용, 해외 공장을 통한 제3국 수출시장 공략 강화 필요
- 향후 환경보호 규제 확대, 동력장치의 전자화,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 새로운 안전 관련 기능 개발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카메라 기능을 갖춘 운전자 보조시스템이나 센서, 모터 컨트롤 솔루션 등 자동차의 IT화·스마트화가 확산될 전망
 - 주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조 안전시스템 장착을 소형차로 확대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전장부품과 IT 응용기술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견고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충에 역량 집중 필요
 - 전반적인 수요 회복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엔저 현상과 美 테이퍼링 등 시장 불안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급선무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카스테레오(MTI 822300)
 - 재정위기 여파로 자동차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최근 독일기업과의 장기거래 구축에 따른 한국산 전장부품 수요 증가
 -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독일 진출을 통한 시장 공략이 강화되는 추세
 - '13년 對독일 수출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1,400만 달러로 '12년 전년 대비 905.2%에 이어 286.2% 증가
- 기타축전지(MTI 835220)
 - 독일 완성차 메이커의 소싱 확대와 한-EU FTA 효과가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 발생, 한국산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수출 증가세 지속

- '13년 對독일 수출은 1억 1,400만 달러로 120.5% 증가
-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차부품업계의 판도 변화로 향후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

나. 석유화학

□ 최신 동향

- '13년 화학산업 총 매출은 1%의 가격 하락세에 따라 1,880억 유로 규모로 추정(전년 대비 1% 증가)
 - 내수 매출은 1% 증가한 750억 유로, 해외 매출은 1,130억 유로로 전년 대비 정체
- 플라스틱가공산업협회(GKV)에 따르면 '12년 기준 독일 플라스틱 가공 산업의 총 매출액은 562억 유로로 전년대비 0.5% 상승
 - 이 중 내수 매출은 365억 유로, 해외 매출은 197억 유로로 전년대비 각각 0.6%, 0.5% 증가

□ 전문가 인터뷰

- 독일화학산업협회(VCI)
 - 클라이(Karl-Ludwig Kley)회장에 따르면 독일 화학산업은 혁신적이고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로 정평이 나있어 신흥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음.
 -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화학산업은 점차 성장세로의 전환이 예상되며 협회 회원사의 대다수가 영업활동에서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
 - Ter Hell Plastic GmbH(바이어/각종 플라스틱)
 -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산을 수입하며 한국제품 수입도 진행 중
 - 유로존 회복세와 독일 내수 증가에 따라 구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이는 다른 플라스틱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

□ 2014년 전망 : 보통

- 독일화학산업협회(VCI)에 따르면 '14년 매출은 총 1,910억 유로로 소폭의 성장세(1.5%)가 기대되며 독일 내 생산은 2% 증가할 전망
- 다만, 가격하락('14년, 0.5% 예상)의 영향으로 매출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지난 수년간 친환경 부가세 도입 등에 따른 전력가격 상승으로 플라스틱 가공 분야 마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이로 인해 업계 부담이 가중되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우려
- 폐기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 지속 증가
 - 특히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지 않는 PE 필름 제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세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에틸렌중합체 필름(MTI 310320)
 - 독일에서 한국산 PP, PE, ABS 등 주요 범용 석유화학 제품은 품질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한-EU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6.5%)로 유럽 및 일본산과 비교시 가격 대비 품질경쟁력이 개선됨.
 - 한국산 수출의 경우 '11년 312.6%의 급증세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13년에는 1,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2년의 46.2%에 이어 50.8%의 증가 기록
 - 한국 진출기업의 경우 포장재보다는 오디오, 비디오, LCD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가능한 제품을 주로 공급

○ 안료(MTI 221200)

- 지난 2~3년 동안 국내 기업들은 독일 진출을 통해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 대비 품질경쟁력을 내세워 급성장세를 나타냄.
- '13년 對독일 수출은 총 1,700만 달러로 '12년도 48% 증가에 이어 전년 대비 764% 증가

다. ICT

□ 최신 동향

- 연방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에 따르면 '13년 ICT 시장 매출은 총 1,407억 유로 규모로 전년대비 1%의 소폭 증가세 기록
 - 이 중 IT 시장은 747억 유로로 전년대비 2% 성장했으며,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은 660억 유로로 같은 수준 유지
- IT 하드웨어 시장은 포화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1.1%)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경우 각각 4.9%, 2.4% 성장
 -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 중 서비스를 제외한 기기와 인프라 부문은 각각 7.9%, 2.9% 증가율을 기록하며 비교적 호조세를 유지

□ 전문가 인터뷰

- M사(진출기업/산업용 PDA)
 - 유럽 경기회복에 따라 독일 시장 역시 전망이 밝으며 수요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을 강화할 예정임.

□ 2014년 전망 : 보통

- 연방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는 '14년 ICT 시장 매출을 전년 대비 1.7% 증가한 총 1,430억 유로 규모로 예상
-

- 이 중 IT 시장은 768억 유로(2.8% 증가),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은 663억 유로(0.5% 증가)로 예상
 - 특히 소프트웨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기 부문에서 각각 5.1%와 7.2%의 높은 증가세 예상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최근 신성장 분야인 IT 융합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
 - 산업설비에 통신망과 같은 IT 기술을 융합하여 전력 소모를 조절하는 솔루션이나 전력 공급과 차단, 기계 운전을 연동하는 기술 관련 제품, 서비스에 대한 신규 수요 다대
 - 시장 적용 범위가 넓고 성장 잠재력이 높아 시장 선점 노력이 필요함.
-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세대 솔루션을 중심으로 제품의 품질과 기능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지속적인 A/S 제공 여부가 매우 중요함.
 - 특히 IT 제품의 경우 대체로 제품 수명이 짧고 신제품 출시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브랜드 강화와 디자인 차별화가 경쟁우위 확보에 중요하게 작용함.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메모리반도체(MTI 831110)
 -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수요 증대에 따른 수요 강세 지속
 - 모바일 D램 가격 상승과 우리 기업의 D램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내 입지 강화
 - '13년 對독일 수출은 총 1억 7,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9% 증가
- 기타 보조기억장치(MTI 813290)
 - 인터넷의 생활화로 메모리카드나 외장하드, USB 메모리 등에 대한 수요 급증
 - '13년 對독일 수출은 총 800만 달러로 '12년 642.4% 증가에 이어 100.3% 증가

라. 전기전자

□ 최신 동향

- 독일중앙전자기술산업협회(ZVEI)에 따르면 '13년 독일 전기전자산업 총 매출은 1,660억 유로로 전년 대비 2.4% 감소
 - 수입은 1,373억 유로로 전년 대비 0.8% 감소
- 총 부가가치 창출의 80%가 산업재(자동차, 에너지 기술, 의료전자기기 등)이며 반도체(10%), 소비재(전자기기 · 오락기기 · 조명, 10%) 순

□ 전문가 인터뷰

- 독일중앙전자기술산업협회(ZVEI)
 - 독일 정부의 원전 폐쇄 결정에 따른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은 중요한 경제 · 사회적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확보가 핵심
 -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4.0' 프로젝트로 독일 전자업계 전반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됨.
- S사(진출기업/ 전자제품)
 -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부 품목군의 시장포화에 따른 수요 감소세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상승효과가 기대됨.
 - 일부 품목군의 경우 독일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주로 유럽 기업과 경합하고 있어 엔저 영향은 미미하나 중국 및 대만 제품이 선전하고 있다는 점이 부진요인으로 작용

□ 2014년 전망 : 보통

- 독일중앙전자기술산업협회(ZVEI)에서는 '14년 독일 전자산업 매출을 '13년 대비 2% 증가한 1,700억 유로 선으로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독일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구입시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 사용의 편리성 제고, A/S 강화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 개선 필요
- TV, 방송수신기 등 가정용 전자제품이 점차 실내 장식용품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에 맞는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개발 필요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MTI 812510)
 - '12.4.30일 아날로그 위성수신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된 이후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대한 수요 증가세 지속
 - '14년 브라질 월드컵 특수로 TV 수요와 동반 상승할 전망
 - 위성방송수신기 기준 '13년 對독일 수출은 2,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1% 증가
- LED 조명(MTI 826910)
 - EU 차원의 백열전구 판매 단계별 금지로 교체 수요 발생
 - 친환경 절전형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공공조달 수요, 기존 조명 제품 교체 관련 수요와 완성차업체의 LED 수요 증가가 기대됨.
 - 기타조명기기 기준 '13년 對독일 수출은 총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1.5% 증가

마. 섬유

□ 최신 동향

- '13년 독일 섬유·패션산업 매출은 총 167억 유로 규모로 추정,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11년 이후 매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문가 인터뷰

○ C사(바이어/폴리에스터 단섬유)

- 동사는 이미 다년간 한국 업체와 거래 중으로 한국 제품의 품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유럽 재정위기에도 큰 변동 없이 꾸준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요 구매 희망 제품은 폴리에스터 단섬유, 비스코스 섬유임.
-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내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원단인 폴리에스터 섬유 역시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2014년 전망 : 보통

- '14년 독일 섬유·패션산업 매출은 167억 4,000만 유로로 전년대비 0.2% 증가 전망
- 자동차, 제지 등의 산업에서 활용되는 기능성 섬유 관련 수요는 경기악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가격경쟁력이 매우 민감한 분야
 - 가격과 품질이 주요 구매요인이며 물류를 비롯한 납기 준수 역시 중요
 - 부피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높은 편
 - 중간재인 탓에 브랜드 인지도는 중요하지 않음.
 - 독일 섬유산업은 패션산업의 해외생산 확대로 수요가 많지 않은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용 기능성 섬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 유럽시장의 주요 품목에 속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및 원사의 경우 한국산의 품질이 높이 평가됨.
 - 가격 조정이 매우 유동적인 편으로 원자재 가격등락과 경기변동에 민감
-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폴리에스테르섬유(MTI 411100)
 -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며 한-EU FTA에 따른 관세(4%) 즉시 철폐 이후 역외 여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개선
 -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용 기능성 섬유 부문에서 한국산의 약진이 두드러짐.
 - '13년 對독일 수출은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4% 증가
- 기타 합성섬유(MTI 411900)
 - 현재 수출 물량은 많지 않으나 고부가가치 품목을 위주로 상승세 구가
 - 특히 품질경쟁력을 갖춘 폴리우레탄직물은 고품질 섬유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수출 전망이 밝음.
 - '13년 對독일 수출은 '12년도 847.5%에 이어 101.1% 증가

바. 기계

□ 최신 동향

- 독일기계설비제조협회(VDMA)는 '13년 기계시장 규모를 전년 수준을 소폭 밑도는 1,943억 유로로 추정
 - * '10년 1,640억 유로, '11년 1,890억 유로, '12년 1,944억 유로
- '13. 12월 말 기준 고용인원은 99만 3,000명으로 '13. 10월 말 최고치 99만 5,000명을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13년 한 해 동안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 향후 경기상승이 기대됨.
- '13년 총 수주는 2% 감소
 - 특히 '13. 12월 비수기 여파로 총 매출이 예상 밖의 6% 감소세 기록
 - 총 수주는 4% 감소, 이 중 내수와 EU 국가로부터의 수주가 각각 10%, 20% 감소한 반면 非EU 국가 수주는 2% 증가

□ 전문가 인터뷰

- 독일기계설비제조협회(VDMA)

- '14년 경기는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평가
- 美 테이퍼링에 따른 신흥국 불안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나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독일 내 생산이 3% 확대될 것으로 진단

○ D사(진출기업/공작기계)

- '13년에는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과 유럽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함.
- 특히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기존 계약 갱신 등 고객 확보에 큰 타격이 있었는데 올해는 경기회복에 따른 반등이 기대됨.

□ 2014년 전망 : 보통

- 독일 기계설비제조협회(VDMA)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로 전망되면서 올해 3% 정도의 소폭 성장이 예상되나 이보다 높은 수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독일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미국 등의 경우 수출 여건이 견실한 편이며, 유럽 재정위기국의 경우 침체기를 넘어서며 성장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시장 내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초정밀·초고속·초절전 기기 등의 제품에서 볼 수 있듯 기술혁신에 따른 제품 차별화가 관건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반도체 제조용 장비(MTI 732100)
 -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이미지와 인지도, 기술력에 힘입어 상승세 구가
 - '13년 對독일 수출은 1,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1.6% 증가
- 금속절삭가공기계(MTI 723100)

- '13년 정밀공구 생산 규모는 약 87억 유로로 전년도의 최고 기록(84억 유로)을 경신
- '14년의 경우 투자둔화가 다소 해소되면서 약 4% 성장 예상
- '13년 對독일 수출은 총 1억 3,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2.6% 증가

사. 의료기기

□ 최신 동향

- 독일의료기기협회(Spectaris)에 따르면 '12년 기준 총 매출은 223억 유로로 '11년 대비 4.2% 증가
 - 내수시장은 72억 유로로 0.8% 축소된 반면 해외 매출은 6.7% 확대됨.
- '13년의 경우 내수시장 안정(0.5% 증가)과 해외 매출 증가(6% 증가) 등으로 4%대 성장세로 추정됨.

□ 전문가 인터뷰

- W사(의료용 영상모니터)
 - 동 제품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편이며 향후 수요 증가세가 꾸준할 전망
 - 현재 아시아권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 중이며 '13년에는 내부 구조조정으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나 올해 잠재고객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경우 20%의 매출 신장이 기대됨.

□ 2014년 전망 : 밝음

- 독일의료기기협회(Spectaris)는 '14년의 경우 내수시장은 1%, 해외 매출은 4.6%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5% 수준의 소폭 성장 예상
- 함부르크세계경제연구소(HWWI) 의료기기 전문가인 볼러스 박사(Dr. Wohlers)는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라 독일 내 수요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시장인 미국과 서유럽의 경우 소득이 높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노령화에 따른 수요가 높은 편
- 특히 고품질의 의료 혁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인구 고령화로 고령자의 안전과 타인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질환관리를 위한 원격케어 서비스 시장 확대 전망
-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차세대 의료 솔루션 관련 시장을 공략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판단됨.
 -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원격판독 솔루션, 임상정보 및 병원정보 시스템 등 클라우드 서버를 접목한 웹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 등이 유망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초음파 영상진단기(MTI 814720)
 - 시장진입이 용이한 품목은 아니나 한국 제품의 품질 대비 우수한 가격경쟁력으로 상승세 지속
 - 특히 종합병원 등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한 이래 납품이 꾸준히 확대 되는 추세
 - '13년 對독일 수출은 1억 500만 달러로 '12년(32.9% 증가)에 이어 6.2% 증가
 - 분석시험기부품(MTI 815600)
 - 꾸준한 기술 개발과 FTA 효과로 비교적 큰 폭의 수출 증가율 기록
 - 경기둔화세에도 불구하고 '13년 對독일 수출은 2,700만 달러로 '12년 (23.7% 증가)에 이어 47.7% 증가
-

[영국]

I. 2014년 영국 경기전망

□ 최근 경제 동향

- 영국 경제는 '13년 3분기 2.8%, 4분기는 0.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어 경기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13년 연평균 성장률은 1.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가 '13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14. 2월 기준 50을 상회하고 있어 제조업 역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영란은행의 금리인상(현재 0.5%)이 유력시됨.

<영국 최근 경제지표 동향>

(단위: 억 파운드, %)

구분	2011	2012	2013
GDP 성장률	1.1	0.3	1.7*
재정적자(GDP 대비)	7.6	7.3	6.6*
공공부채(GDP 대비)	70.9	74.2	74.5*
수출금액(증감률)	3,207(22)	3,067(-4.37)	3,506(14.3)
수입금액(증감률)	6,706(13.7)	6,932(3.37)	6,526(-5.85)
실업률	7.9	7.7	7.1
물가상승률	3.2	2.7	2.1

자료원: Eurostat, Bank of England, HM Treasury

주: *는 '13년 추정치, 2014.3월 기준 최신 수치

□ 2014년 경기전망

- (GDP) IMF에서는 '14년 성장률을 2.9%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난 3년 동안 긴축정책의 여파로 연평균 성장률이 1.2%에 불과했기 때문에 침체기 동안 위축된 경제 규모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
- (재정건전성) 재정적자는 '11년 7.6%에서 '13년 6.6%로 개선된 반면 공공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 4% 이상 증가하여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 (교역) '10년 이후 영국기업들이 유로존에 대한 의존도는 축소하고 신흥 시장 개척을 확대하면서 수출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14년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신흥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대외교역이 감소 혹은 증가폭 둔화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실업률) '13년 3분기 7.4%, 4분기 7.1%로 추정되며, 실업률 하락세는 정부가 '13년부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 대한 복지를 축소하며 발생한 현상으로 실업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됨.
 - '14. 1월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출신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향후 수년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국인 실업률은 더욱 악화될 전망
- (기업투자) 금리인상이 유력시되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기업투자가 감소세를 보일 전망
 - 영란은행 총재는 실업률이 7%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
- (물가상승률) '13년 말 물가상승률이 2% 수준으로 영란은행의 목표치에 근접한 가운데 올해 2~2.4%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총론 및 특이사항, 시사점

- 영국 경제는 '13년 1.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14년에는 2% 중반대의 성장이 기대되는 등 확실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침체기 동안 잃어버린 경제 규모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전망대로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1인당 소득은 글로벌 위기 이전인 '07년 대비 4% 낮은 수준임.
 - 부동산 거품 재연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
 - 정부가 '13. 4월부터 갑자기 추진한 신규주택 구매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수개월 만에 '07년 이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급상승
 - '14년 혹은 '15년경에 치러질 총선을 겨냥한 정책으로 정치적으로는
-

성공이나 경제적으로는 극약처방이라는 비판에 직면

* '13년 기준 영국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보다 20% 낮음에도 주택 가격은 50% 높은 상황임.

- '13년 4분기 성장률 0.7% 중 서비스산업 기여도가 0.6%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은 0.1%에 불과, 거품을 제외하고 보면 영국 경제는 취약한 상황임.

○ 4분기 실업률은 7.1%로 금융위기 당시 8%대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산업생산 감소는 우려사항

- 산업생산 감소는 곧 실질임금 하락을 의미하므로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담이 높아져 내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음.

○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는 금리 조정 시기에 따라 결정될 전망

- 결론적으로 영국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전망도 양호한 편

- 그러나 산업생산과 내수시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물가상승이 일어날 경우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 금리조정 여부와 시기에 귀추가 주목됨.

○ 한국의 對영 수출은 가전·잡화 등 일반 소비재 비중이 낮아 내수침체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산업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설경기과 같은 대형 산업 수요 중심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 수출 회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II. 2014년 영국 주요 산업별 기상도

1. 산업구조 개요

□ 산업구조 개황

- 무역과 금융 중심의 산업 구조를 토대로 경제 대국의 입지를 구축하여 왔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부문은 은행,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유통 등 서비스 산업으로 GDP의 73.6%를 차지하며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
- 특히 금융은 GDP의 13% 가량을 차지할 뿐 아니라 세계 외환·주식·파생상품 거래의 40%를 점유,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의 허브국가임.

□ 특징

-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크지만 제조·생산부문에서도 높은 경쟁력 보유
-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 에너지 산업이 GDP의 10%를 차지
- 우수한 항공우주 산업과 소재기술력을 바탕으로 무기류 수출 규모가 큰 방산대국
- 전 세계 유통 의약품의 절반이 영국에서 개발되었을 정도로 제약산업이 강함.
 - 국민의료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의료바이어로 영국 내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의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
- 전자·IT 분야의 경우 직접 제조는 거의 전무하나 스마트기기 칩셋(chipset)¹⁾ 설계국으로 기술력과 지적재산권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1) 여러 개의 마이크로칩과 회로가 모여 시스템 전체를 하드웨어적으로 컨트롤하는 장치로,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 논문 피인용 지수가 미국에 이은 2위로 탄탄한 학술 인프라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자산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역할 수행
- 해리포터 시리즈는 처음 출간된 '97년부터 '06년까지 같은 기간 한국의 대표 수출상품인 반도체보다 1.3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짐.
- 영화 및 TV 제작물 분야에서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출국으로 탄탄한 창조문화산업 기반 보유

<영국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단위: %)

산업 구분	2009	2010	2011	2012
국내총생산	100	100	100	100
생산업	11.8	12.4	13	13.1
- 농업, 어업, 임업	0.5	0.7	0.7	0.8
- 광업	2.5	2.7	2.9	2.9
-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재	2.5	2.5	2.7	2.5
- 건설	6.3	6.5	6.7	6.9
제조업	10.5	10.6	10.7	10.7
- 식품, 음료, 담배	1.6	1.8	2	1.8
- 금속,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8	1.9	2	2
- 기타 제조업	1.7	1.7	1.5	1.5
- 조선	0.3	0.1	0.1	0.1
- 화학	1.3	1.3	1.2	1.4
- ICT 및 정밀공업	0.7	0.6	0.6	0.4
- 자동차	0.3	0.3	0.5	0.7
- 항공우주	0.1	0.2	0.4	0.4
- 기계, 전기 및 교통	2	1.9	1.7	1.5
- 의약품	0.7	0.8	0.7	0.9
지식서비스	28.5	29.2	29.5	28.9
- 통신	1.3	1.3	1.7	1.5
- 디지털, 창조, 정보 서비스	4.6	4.6	4.5	4.7
- 금융 서비스	8.8	9	9.4	9.1
- 기업 서비스	7	7.5	7.1	6.8

중앙처리장치와 주메모리, IDE 디스크장치의 각종 신호를 조절함.(자료원: 네이버 제공 두산백과)

- 연구개발	0.1	0.1	0.3	0.3
- 교육	6.7	6.7	6.5	6.5
기타 서비스	49.2	47.8	46.7	46.7
- 숙박업 및 요식업	2.6	2.5	2.9	2.9
- 소매판매	4.9	4.9	5.2	5.4
- 유통	10.6	10	10.9	11.2
- 부동산	6.7	6.8	7.1	7.1
- 행정지원 서비스	4.9	4.9	4.8	4.5
- 공공행정 및 국방	5.1	4.9	4.9	4.5
- 보건	8.5	8.1	7.8	7.6
- 기타 사회복지	5.9	5.7	3.1	3.5

자료원: Industrial Strategy: UK Sector Analysis, BIS

주: 각 산업별 창출 부가가치의 GDP 비중임. 2013년 자료는 미발표

2. 산업별 기상도 및 유망품목

가. 자동차

□ 최신 동향

- 신흥국에서의 영국산 자동차 선호 현상에 힘입어 국내 자동차 생산은 증가하는 추세
 - '13년 기준 매출 규모는 889억 달러로 전년대비 9% 성장
 - 부가가치 창출액은 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신차등록 수는 210만대로 전년대비 3% 증가
- 제품 가격의 하락세로 내수시장 역시 확대되는 추세
- 중소형 모델 및 브랜드의 강세 지속
 - 도요타를 비롯 '13년 사상 최대 판매실적을 올린 일본 완성차메이커들과 폭스바겐, 현대·기아자동차의 중·소형 차량의 판매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미니카 컨셉의 저배기량 제품이 유행

- 이에 따라 롤스로이스, 재규어, 애스턴마틴 등 고급 스포츠카 업체들도 소형차 컨셉을 벤치마킹하여 미니카 모델을 라인업에 추가하는 추세임.

□ 전문가 인터뷰

-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Society for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
 - 그레프 바커(Gref Barker)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영국 자동차 시장은 불황형 성장에서 탈피, '14년에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기차에 대한 정부지원 유지, 환경 및 경제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경차와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전망 : 밝음

- 저탄소배출 차량에 대한 면세 및 에너지 가격 혜택으로 전기자동차 등 특수차종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소형차 및 전기차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확대될 전망
- '14년 신차 등록수가 214만대 선으로 '13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규모가 '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법인구매가 개인구매를 앞지를 전망
 - '12년 말 기준으로는 개인구매가 법인구매의 2.5배 수준이었음.
 - 그러나 구매력 및 경제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소형차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필요한 경우 차를 빌려 사용하는 카클럽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기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 '16년에는 법인 대비 개인구매가 5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소형 자동차,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MTI 7411)
 - 좁고 낙후된 도로와 주차시설 부족, 비싼 유류비와 보험비 탓에 영국에서는 대형 승용차 대신 저배기량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특히, 전기차의 경우 5,000 파운드의 구매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인기가 높음.
- 교체용 자동차부품(MTI 7420)
 - 영국 정부가 지난 '12년 매년 실시되는 자동차 정기점검(MOT)을 격년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하고 당분간 '16년까지는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교체용 자동차부품 수요가 유지될 전망
 - 이에 따라 정기점검 서비스업체 수가 '13. 6월 누계 기준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부품 수요도 증가할 전망

나. ICT

□ 최신 동향

- 이동통신 부문 내수시장은 포화 상태인 반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국시장 내 소매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 영국 ICT 시장은 독립시장으로 분류되는 방송매체 부문을 제외한 통신기술(인터넷, 이동통신, 소비자가전 포함) 전반을 의미하는데, 시장규모는 '12년 부가가치 창출 기준 약 1,300억 달러로 유럽 최대 규모이며, 특히 전자기기는 유럽 전체 소비의 약 14%를 차지
- '13년 소매매출 기준 무선전화 시장규모는 '13년 제품 수입시장 규모는 83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 확대

□ 전문가 진단

- 세계무선통신기구(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Association)
 - 스마트폰이 영국 무선전화기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민자 유입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피쳐폰 점유율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
 - TESCO를 위시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선불식 전용 단말기나 초저가 피쳐폰을 OEM 제품으로 판매하는 추세도 두드러질 전망

□ 2014년 전망 : 밝음

- 스마트폰 보급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른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시장으로 신제품 교체에 적극적인 소비패턴 덕분에 포화상태임에도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스마트폰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무약정 선불식 무선전화, 초저가 피쳐폰 등의 제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시장 전망은 밝은 편
- 스마트기기용 콘텐츠 시장이 선두주자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수요가 풍부하고, 독일, 프랑스 등 인접국으로의 재수출 물량이 많아 유럽 최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12년 중 주파수 경매 문제로 4세대 통신기술인 LTE 활성화가 지연되었으나 '14년부터는 동 시장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LTE 단말기 수입 확대 기대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영국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8,270만 명으로 인구(6,241만 명) 대비 132%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보급률을 자랑
- 영국인들이 통신 및 콘텐츠 소비를 기기 하나로 해결하는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 특성 탓에 무선전화는 컴퓨터나 TV 등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인식됨.

- '13년 하반기부터 주요 이동통신사에서 약정기간(대부분 2년)에 상관없이 소액의 추가금액만으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단말기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대화면 스마트폰(MTI 8121)
 - '13년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들은 대화면(액정표시장치)을 셀링 포인트로 내세우는 한편, iOS 계열은 콘텐츠 경쟁력 우위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하드웨어의 고급화를 강조하고 있음.
 - 그러므로 안드로이드 중심인 한국산 스마트폰은 대화면을 주력 마케팅 요소로 iOS 계열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경쟁력과 운영체제의 범용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다. 기계

□ 최신 동향

- '12년 기준 영국 기계산업 규모는 부가가치 창출 기준 120억 달러 선이며, 전년대비 약 10% 성장
 - 기계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은 중장비 부문으로 전체 기계시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7억 달러 규모
 - * 영국의 북해유전, 해상풍력 등 에너지산업용 플랜트 설비 수요, '13년 이후 두드러진 주택건설 수요, 고속철('20년경 완성 예정)이나 대형발전소 등 토목건설용 수요가 전체 기계산업 수요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이중 플랜트 및 중장비를 제외한 공작기계 시장은 약 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성장
- 공작기계 수입은 '11~'12년간 급증했다가 '13년에는 5%의 소폭 감소를 나타냈으며 한국은 제1위 수입 예상 국임.
 - 영국에서 유통되는 공작기계 중 국내 생산 비중은 1% 미만에 불과
 - 수요의 상당 부분이 주문형 특수기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한

- 국산은 20% 내외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수입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음.
- '13년 수입이 5% 감소한 것은 품목 특성상 수요처가 제한적이고 제품수명이 길어 수요증감 주기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인데, 지난 2년간 수입 급증 추세로 보아 공작기계 수요가 전반적인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신흥국 수요 증가, 제조업 부흥책에 따른 수요 증가
 - '08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 여파로 영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줄여 신규설비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였음.
 - 그러나 '10년 이후에는 신흥국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생산이 확대되고, 정부의 제조업 부흥책에 따라 공작기계 구매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함.

□ 전문가 진단

- Axminster (공작기계 유통)
 - 동사 영업 담당에 따르면, '13년 들어 '12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음.
 - '08년부터 '12년까지는 수출이 전체 매출의 30%에 육박했으나, '13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 내수시장이 살아난 것을 체감

□ 2014년 전망 : 밝음

- 제조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호황 덕분에 저가형 공작기계 등 일부 기계 관련 수요 증가 기대
 - '13년 하반기 이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가 50 이상 유지
 - 건설시장은 '13. 4월부터 영국정부의 신규주택 구매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건설업 구매관리지수가 '13년 말 기준 59.1(50이 기준점)을 기록하고, 동기간 영국의 주택가격상승률은 3.9%에 달하는 등 성장세 시현
 - 특히, 한국산은 최첨단 기계보다는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금속가공 기계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 제조업 및 건설 부문 수요에 적합하기 때문에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영국 제조업은 단순소비재보다는 방위, 항공우주, 고급자동차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금속부품의 중요도가 높아 금속가공업이 발달되어 관련 기계 수요가 꾸준한 편
- 금속가공 공작기계의 주요 고객은 건설·건축, 조선,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대형 산업 분야로 납품되는 부품 전문 제조업체들임.
- 특정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충성도가 강해 좀처럼 거래선이나 품목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는 어려운 시장임.
- 구매는 전문 유통사를 통하기보다는 제조사로부터의 직구매를 선호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금속가공 공작기계(MTI 7321)
 - 제분·도정(milling)용 금속가공 기계는 과거 수요처가 첨단 제조업에 국한됨.
 - 그러나 최근 제조업 호황으로 일반 공산품 제조가 늘고 건설용 수요도 증가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저가형 한국산 기계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네덜란드, 독일 등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위기 여파로 제조업이 위축된 이후 공작기계를 인하된 가격에 대량으로 해외시장에서 소진하고 있어 기계 가격이 하락, 저가 실속형 기계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음.
 - 가격경쟁력보다는 제품의 정확도와 내구성 등 품질이 중요한데, 한국산은 상기 요소들을 두루 갖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라. 건설

□ 최신 동향

- 영국 건설시장은 2012년 부가가치 창출액 기준 1,220억 파운드 규모

로 전체 GDP의 6.9%를 차지

- 주거부문이 420억 파운드(공공부문 140억, 민간부문 280억), 기반시설이 180억 파운드(공공부문 70억, 민간부문 110억), 비즈니스·기타부문이 490억 파운드(공공부문 200억, 민간부문 290억)의 비중 차지
- 영국 건설부문 구매관리지수는 2013년 초 50에서 8월경에는 59.1까지 급증하여 건설경기가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의 구매지원정책으로 신규주택 건설이 경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동유럽 및 러시아권의 영국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건설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 '12년 런던올림픽 이후 주춤했던 대형 토목건설 시장은 그간 불투명했던 영국 고속철(HS2) 사업 추진이 '14년 초 가시화되고, 영국 최초의 4개 위성 신도시(Garden City) 부지가 확정되어 다양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분위기임.

- 이처럼 주택시장 활성화와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등으로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토목건설용 중장비 수요 증가
 - 굴삭기와 같은 중장비 시장은 '12년 런던 올림픽 관련 대규모 토목건설 수요 충당을 위해 '11년 수입이 전년대비 89.1%로 급증한 바 있음.
 - '13년 시장규모는 약 2억 달러로 전년대비 6.5% 감소했으나, 건설중장비 교체주기를 감안하면 '12년 이후 '13년까지 수입이 연이어 소폭 감소세를 보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14년에는 다시 수요가 급증할 전망

□ 전문가 진단

- JCB(건설중장비 및 특수차량 공급업체)
 - 동사 마케팅책임자에 따르면, 영국의 건설중장비 시장은 '12년 런던 올림픽 전후 크게 성장, 2년이 지난 '14년 현재 교체 수요가 많음.
 - 중장비를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면허등록이 '13. 6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약 20% 증가, 건설용 장비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4년 전망 : 밝음

-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
 - 영국 정부가 '13. 4월부터 신규주택 구매자금의 95%를 대출해 주는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주택건설 붐이 일면서 공급부족에 시달리던 주택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음.
- 각종 대형 건설사업 추진으로 경기반등 기대
 - 올림픽 사후 프로젝트로 런던 외곽도로 개보수 사업을 개시, '16년까지 영국 최초 고속철(HS2)의 1차 노선 개설이 추진되는 등 초대형 토목사업이 많아 굴삭기를 비롯한 건설장비·기계류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소형장비 선호에 따른 해당 제품 수요 증가 추세
 - 올림픽 후속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도로 유지보수, 도심철도 확충, 상하수도 정비 등 건설사업 대부분이 도심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영국 도시계획 특성상 대형장비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
 - 또한 대형 시공사가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아웃소싱하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자 개인이 굴삭기를 임대하거나 직접 구매하여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방식이 일반화됨.
 - 이처럼 도심지역에 대한 수요 집중과 개인의 제품 보유 일반화로 인해 저가 소형장비에 대한 수요 비중이 높은 편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굴삭기(MTI 7251)
 - 중장비 중 도심 공사현장에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다양한 작업 수행이 가능한 굴삭기가 가장 선호됨.
 - 소형장비 부분에서 한국산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미국, 스웨덴산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마. 제약

□ 최신 동향

- 영국 의약품 시장은 2011년 매출액 기준 216억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10위권 시장
 - 또한 영국 의료시장 92%를 국가(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서 독점하는 구조임.
 - 금융위기 이전인 '07년까지는 세계 6위권이었으나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관련 예산 축소의 영향을 받음.
- '13년부터 주요 영국산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14년에는 이 중 90%가 만료될 예정으로 복제약(generic drugs) 시장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
 - NHS가 국내 병원의 92%, 보건시장 전체의 98%를 점유하는 구조로 모든 시민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처방약품만 구매하고 비처방 일반의약품 구매는 거의 하지 않는 시장이었음.
 - 그러나 특허만료로 저렴한 복제약이 등장하면서 해당 제품 소매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임.

□ 전문가 진단

- NHS Supply Chain(영국 국가보건서비스)
 - 구매·유통 담당이사에 따르면 비아그라와 같은 실데나필류²⁾의 경우 특허만료 이후 복제약 등장으로 가격이 이전 대비 300분의 1로 하락하는 등 다른 주요 제너릭 약품도 큰 폭의 가격하락을 나타내는 추세
 - 한국의 경우 발빠른 대응으로 류마티스 치료제와 같은 고부가가치 의약품 부문에서 영국시장에 복제약을 시판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며, OEM 납품 경험이 많아 시장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2) 비아그라(Viagra) 등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원료로 쓰이는 화학구조물의 명칭으로, 심장질환 및 혈액순환 개선 등에 효능을 보이는 약물이며, 비아그라 특허 만료 이후 형성된 복제약 시장에서는 실데나필이 복제약 제품 명으로 사용 허가되었음.

□ 2014년 전망 : 밝음

- 복제약 가격경쟁 속에서 한국산 우세
 - 한국산은 복제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 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
 - 특히, 항생제 분야와 바이오시밀러³⁾ 부문에서는 한국 제약사들이 가장 먼저 신약을 출시하고 있음.
- 공공조달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유럽산 대비 경쟁력 강화
 - 국가보건서비스(NHS)로 전면 무상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영국 특성상 공공조달 수요가 의약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
 - 그간 한국 제약사들은 NHS의 1차 공급선인 영국 및 유럽산 의약품 전문 유통사들에 납품하여 왔으나, 복제약 시장 활성화와 NHS의 비용절감 정책으로 아시아 제약사로부터의 직수입 선호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국영 의료서비스가 독점적 구매력을 행사하는 특수시장
 - NHS는 영국 소재 병원의 92%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내 유통되는 의료 관련 제품의 98%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단일 의료 바이어임.
- 일선 의사의 구매결정 권한 확대로 제조사의 직납 기회 확대
 - NHS에서는 '12년부터 중앙에서의 일괄구매 정책을 변경, 일선 의료진들이 직접 구매대상을 선정하되 예산집행은 중앙에서 처리토록 함.
 - 이에 따라 제약사와 에이전트, 전문 유통사 등 3단계를 거쳐 현지 업체를 통한 공공입찰로만 진행되었던 구매절차가 간소화됨.
 - 또한 일선 의사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아시아산을 직접 소싱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

3) 바이오시밀러(Biosimilars)는 유전자재조합 및 세포배양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품질, 효능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의미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바이오시밀러(MTI 2262)

- 의료시장의 92%를 점유하는 NHS가 바이오의약품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탓에 바이오제약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나, 한국산 제품진출 이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인식 제고
- 한국제품 중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10년 영국 대학병원 임상실험에서 성공을 거두고 NHS에서 실사를 개시하여 진출 가능성을 입증
- 이미 한국산 바이오시밀러는 한국에서 개발 완료 및 시판에 들어간 제품들이 많아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영국에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에너지

□ 최신 동향

- 영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97%에 달하는 에너지 생산대국이자 BP社, Royal Dutch Shell社 등 거대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의 본거지임.
 - 세계 에너지 및 연료 거래시장의 38%를 점유하는 허브 국가로서 경쟁이 치열
 - '12년 기준 에너지 시장은 GDP 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 수는 순수 에너지 생산 및 공급사만 47개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액 기준 경제유발 효과는 200억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 시장임.
 -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12년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7%, 종사자 수는 1.2% 증가했으며 '15년까지 '11년 대비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
- 1997년 교토기후협약 이후 영국은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으로서 가장 강도 높은 탄소규제 정책을 시행 중
 - '07년에는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 의무감축을 법제화하고 '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 목표를 강제하여 화력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렸음.
 - 그 결과 '10년에는 당시 세계 최고 기록인 1.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량을 달성한 바 있음.

- 경기침체 여파로 영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은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음.
- '14년까지 7.6GW 발전량을 목표로 추진되던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해상풍력 산업은 '11년 하반기에 들어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전무함.
- 반면, 풍력에 밀리던 태양광발전의 경우 정부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로, 프로젝트 규모의 제한 없이 2020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유럽 태양광 기업들이 영국으로 대거 진출, 회생을 모색 중임.

□ 전문가 진단

- National Grid(에너지 인프라 공급사)
 -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경우 산업발전용이 아닌 소매형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산이 향후 영국 태양광 발전사업 수요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유통망을 공략하는 것도 좋으나 무엇보다 태양광 프로젝트는 발전사업체가 주도한다는 점을 감안,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전망 : 보통

- 신재생에너지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하나 현 상황에서는 경기회복 추이와 속도에 따라 유동적임.
- 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태양광발전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3년 신규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약 800MW, '14년 신규 설치될 태양광 발전단지 규모는 약 1.5GW로 약 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임.
- 영국 정부는 태양광 발전용량이 현재 3GW에서 6년 후 최대 20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스페인(4.7GW)과 이탈리아(16.5GW)는 물론, 최대 태양광 발전국인 독일(35.4GW)을 추격할 것으로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재생에너지 의무제도(Renewable Obligation: RO) 도입
 - 전력의 일정비율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충당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제도'에 따라 정부에서 전력을 매입
 - 영국의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Feed-In-Tariff)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해당 전원의 발전량 전체를 고정가격에 매입하며, 생산자가 불필요한 시간대에 송전하는 분량에 대해서도 고정가격으로 매입됨.
 - 지원금 규모 자체는 재정위기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축소되고 있으나, 규모 제한 철폐, 상업·주거용도 포괄 등 지원범위나 내용은 오히려 개선됨.
 - '11.12.12일 이후 등록된 설비에 대해서는 '12.4월부터 약 44~60%의 매입가격 인하가 발표되었으며, 그 외 단열기준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가를 더 낮추는 규정이 추가됨.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완제품(MTI 8313)
 - 한국제품이 최근 2년간 영국시장에서 고전했던 이유는 중국산 대비 가격열위와 소매시장 대신 산업수요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임.
 - 그러나 정부 지원책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장이 급부상, 한국산 패널이 예전 판로를 다시 회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사. 섬유

□ 최신 동향

- 글로벌 경기침체로 실속구매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저가형 의류 및 침구류 소재인 합성섬유가 각광받고 있음.
- 합성섬유 시장 규모는 '13년 매출 기준 약 2억 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14% 증가했고, 수입규모는 1억 5,400만 달러로 역시 14% 증가

- 합성섬유류는 거의 전량이 의류·침구류 등의 소비재 생산용으로 사용, 다른 공업수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매시장 여건에 크게 좌우됨.
- '00년대 초중반 의류·침구류 등에 천연소재를 사용하는 트렌드로 폴리에스터 수요는 정체되었음.
- 그러나 '08년 이후 경기침체 여파로 저가 실속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공섬유 사용이 다시 확산되었으며, 당분간 산업계 전반에 걸쳐 폴리에스터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전문가 진단

- Primark(의류 유통사)
 - 유럽 최저가를 표방하는 업체로 동사 구매총괄 담당에 따르면 향후 2~3년간은 합성섬유 사용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
 - 폴리에스터 섬유의 수요처가 의류시장 등으로 제한적인 탓에 소량 구매가 대세였으나, 최근 주요 의류 기업들이 해외 OEM 대신 영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어 기본 구매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14년 전망 : 밝음

- 중국산 반덤핑 조치 완료로 한국제품의 반사이익 기대
 -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이 한국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 상대였으나 '13.12.19일부로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치 검토 작업이 완료됨.
 - 이에 따라 규제가 시작될 경우 한국산이 큰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며, 다수의 한국 섬유제조업체들은 수요증가를 예측하고 물량확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짐.
- 거래조건이 유연한 한국기업과의 거래 선호
 - 저렴한 가격에도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택한 바이어들은 중국업체들이 관행상 일정 물량(대부분 1km) 이하는 판매를 하지 않는데 반해 한국업체는 이에 비교적 유연하게 응하고 있기 때문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영국 내 섬유유통은 전문 도매상이 70%, 도소매를 겸하는 유통사 20%, 소매 전문상이 10%를 차지
 - 도매상의 50% 이상이 미들랜즈(Midlands)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95% 이상이 2인 이하의 영세업체임.
- 한국산 섬유는 대형 유통사에 공급되기보다는 영세 도매상과 B2B로 거래
 - 이는 도매상의 대부분이 파키스탄계 소수민족 가족기업들로 한국산 섬유를 명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거래에 적극적이기 때문
- 의류 제조사가 직접 폴리에스터를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예전에는 천연섬유 열풍과 유럽산 선호 트렌드가 확고히 구축되어 한국산 폴리에스터 제품을 의류제조사에 직접 납품할 기회가 적었음.
 - 그러나 최근 2~3년간 의류 제조업체의 폴리에스터 직접 수입이 늘고 있음.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의류시장용 원단류(MTI 436)
 - 최근 2~3년 사이에는 의류업체들이 제조사들로부터 원단을 직접 수입하여 생산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 특히 저가 브랜드는 한국산에 관심이 높음.
 - 한편 한국 섬유산업이 호황을 구가하던 90년대부터 남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산이 고급제품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이 지역 출신 이민자들의 가족기업들이 도매상으로 활동하고 있어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가 좋음.

[프랑스]

I. 2014년 프랑스 경기전망

□ 최근 경제 동향

○ GDP

- '13년 성장률은 0.3%로 예상을 깨고 정부 목표(0.1%)보다 높은 수치 기록
 - * 1분기와 3분기 각각 -0.1%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0.6%, 4분기 0.3%에 힘입어 연간 0.3% 성장률 기록
- 4분기 가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0.5%, 0.9% 증가하면서 GDP에 대한 내수 기여도가 0.5로 급등

○ 재정건전성

- '13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4.3%로 전년도 4.8%에 비해 0.5% 감소
 - * 긴축재정(지출 축소), 세제개혁(증세), 정부소유 자산(부동산 및 지분 등)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추진 결과
- 공공부채 비율은 '12년 90.2%에서 '13년 93.4%로 증가
 - * 증가폭은 2012년 4.4%에서 2013년 3.2%로 둔화

○ 교역

- '13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 2.3%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12년 대비 60억 유로 감소
 - * 수출 감소는 3년 연속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철강, 화학 등의 중간재와 기계류, 자동차의 수출량 감소 및 가격하락에 기인
 - * 수입 감소는 3년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에너지 수입 감소(-7.1%)에 기인

○ 실업률

- '13년 말 실업률은 10.2%로 전년 대비 0.4% 감소
 - * 고용증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도 개혁이 미흡하고 지연되면서 구조조정과 파산기업이 속출, 실업인구(특히 고령층)가 3분기까지 증가했으나 4분기 중 직업훈련, 비정규직 고용 증가 등에 힘입은 청년 실업 감소에 따른 상쇄 효과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 기록

○ 기업투자

- 정부의 기업투자 유도정책과 경쟁력 및 고용 개선을 위한 세금공제 정책 등에 힘입어 4분기에는 운송, 공산품 등 일부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2.3% 감소
- * 공산품 분야 투자는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1.1% 증가했으며 서비스 및 건설 부문 투자는 3분기 각각 1.7%, 0.4% 감소한 후 4분기에 0.4%, 0.5%씩 증가

○ 소비

- '13년 가계소비와 공공소비는 각각 0.4%, 1.7% 증가
- * 가계소비는 에너지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자동차, 설비재 등의 상품 소비 증가(0.8%), 서비스 지출 소폭 증가(0.2%)에 힘입어 '12년 0.4% 감소에서 상당히 호전됨.

<프랑스 최근 경제지표 동향>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1	2012	2013
GDP 성장률	2.0	0.03	0.3
재정 적자(GDP 대비)	5.3	4.8	4.3
공공부채(GDP 대비)	85.8	90.2	93.4
수출금액(증감률)	428,234(8.4)	441,402(3.1)	435,642(-1.3)
수입금액(증감률)	502,399(12.3)	508,643(1.2)	496,831(-2.3)
실업률(본토)	9.8(9.4)	10.6(10.2)	10.2(9.8)
물가상승률	2.1	2.0	0.7

* 자료원: 프랑스통계청(INSEE), 프랑스중앙은행(BdF), 프랑스재무부 수출입통계

□ 2014년 경기전망

○ GDP

- 1%의 소폭 성장 전망
- 긴축재정('17년까지 500억 유로 추가 감축)에 따른 공공부문의 투자 및 지출둔화 예상
-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 투자 및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됨.

○ 재정건전성

- 재정적자 비율은 '13년보다 0.3% 떨어진 4%로 예상
 - * 재정수입은 저성장, 기업에 대한 세금경감정책으로 35억 유로 감소하는 한편 지출 역시 44억 유로 감소로 재정적자는 9억 유로 정도 낮아질 전망
- 공공부채 비율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95.1%로 악화될 전망

○ 교역

-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은 선진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각각 3.5%, 3% 증가할 전망
 - *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소폭 개선된 532억 유로 선으로 예상

○ 실업률

-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여 11%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 고용증대 정책에도 1% 경제 성장으로는 고용창출이 어려울 전망

○ 기업투자

- 기업투자는 재고 감소 및 해외 수주(식료품, 화학, 고무, 비철금속, 철강 등)에 힘입어 '13년 마이너스에서 '14년 플러스로 선회할 전망
 - * 1월 설문 결과, '13년 7.0% 감소했던 기업투자는 '14년 3% 증가할 전망
 - * 3월 관리자구매지수(PMI)는 49.7로 예상치(48.5)를 크게 웃돌았으나 경기회복을 의미하는 기준치(50)에는 미치지 못함.
 - * 2월 생산지수는 98.7로 기준치(100)를 약간 밑돌고 있으나 3개월째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소비심리

- 높은 실업률 및 증세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소비심리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하반기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
 - * 3월 소비심리지수는 88로 2월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으나 기준치(100)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총론 및 특이사항, 시사점

- '13년 프랑스 경제는 실업률 증가, 내수 및 기업투자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선전

- 미국 및 일본 등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분기 및 4분기에 각각 0.5% 및 0.3% 성장한 결과로 예상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불황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됨.
- '14년에는 수출 호조에 따른 1% 성장 기대
 - 미국의 테이퍼링에 따른 환율변동,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신흥국 및 러시아에 대한 수출 둔화가 우려됨.
 - 그러나 주요 시장인 선진국 경기회복,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對이란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 전반적으로 수출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1% 성장이 예상됨.
- 현 정부의 정치 기반 위축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경기 전망은 밝은 편
 - 지방선거 패배 등으로 올랑드 정부의 정치 기반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국가경쟁력 제고 및 고용 증대를 위한 감세정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전망
- '14년 우리나라의 對프랑스 수출은 '13년 급등세(48% 증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 그러나 '14년 예산안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가 올해 전년대비 3배 이상의 교역과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여 對프랑스 수출은 10%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II. 2014년 프랑스 주요 산업별 기상도

1. 프랑스 산업구조 개요

□ 산업 구조 개황

- '12년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민간부문 77.4%과 공공부문 22.6%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년간 같은 구성비를 유지하고 있음.
- 민간부문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56.6%로 가장 높고 제조업은 광업(2.6%)을 포함하여 12.5%, 건설업이 6.3%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며 농업·어업·수렵은 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공공부문에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7.8%, 교육과 보건이 각각 5.7%, 5.9%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음.

□ 특징

-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 복지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교육은 대부분 국·공립교육기관에서 담당하며 사교육은 잘 발달되지 않은 점이 특징
- 제조업은 해마다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로 무역적자와 실업증가의 온상으로 지목
 - 프랑스 40대 기업 인력의 2/3가 해외법인에서 근무할 정도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리쇼어링(reshoring) 등 제조업 부활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
- 유럽 최대 농업국가임에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
 - 인구와 국토 면적이 큰 폴란드 등이 EU에 가입하면서 유럽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개혁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지속 감소 및 가축 질병 확산으로 축산업이 위축된데 기인

<프랑스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단위: %)

산업구분	2009	2010	2011	2012
국내총생산	100	100	100	100
민간부문	77.4	77.4	77.5	77.4
농업, 어업, 수렵	1.5	1.8	1.9	2.0
제조업, 광업, 기타	13.0	12.8	12.7	12.5
- 채굴, 에너지, 수도, 오물, 공해처리업	2.4	2.5	2.5	2.6
. 채굴	0.1	0.1	0.1	0.1
. 전기, 가스, 수증기, 압축공기 생산	1.6	1.6	1.5	1.6
. 물 생산 및 급수, 소독, 오물 및 공해처리	0.7	0.8	0.8	0.8
- 식품, 음료, 연료제품	2.0	1.7	1.8	1.9
- 코크스제조, 정유	0.1	0.1	0.1	0.1
- 전기기기, 전자제품, 정보기기, 기계류	1.4	1.4	1.3	1.4
. 정보, 전자, 광학기기	0.4	0.3	0.3	0.3
. 전기장비	0.4	0.4	0.4	0.4
. 기계 및 기타 장비	0.6	0.7	0.6	0.7
- 운송장비	0.9	1.0	0.9	0.9
- 기타 공업제품	6.2	6.1	6.1	5.7
. 섬유, 의류, 가죽, 신발	0.3	0.3	0.3	0.3
. 목재, 종이, 인쇄	0.7	0.7	0.7	0.6
. 화학	0.8	0.8	0.8	0.8
. 제약	0.5	0.4	0.4	0.3
. 고무, 플라스틱,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1.0	1.0	0.9	0.8
. 제철, 철강제품(기계 및 장비류 제외)	1.5	1.5	1.6	1.4
. 기타 공산품, 기계 및 장비 수선 및 설치	1.4	1.4	1.4	1.4
건설업	6.4	6.1	6.2	6.3
서비스업	56.5	56.7	56.7	56.6
- 도,소매업, 수송, 숙박, 요식업	18.3	18.4	18.4	18.3
. 상업, 오토바이 및 자동차정비업	10.9	11.0	11.2	11.2
. 수송, 창고업	4.8	4.8	4.7	4.6
. 숙박업 및 요식업	2.5	2.5	2.5	2.4
- 정보, 통신업	5.0	5.0	4.7	4.5

. 출판, 시청각 및 방송업	1.1	1.2	1.1	1.1
. 정보통신업	1.6	1.6	1.4	1.3
. 정보, 정보서비스업	2.2	2.2	2.2	2.2
- 금융 및 보험업	4.5	4.8	4.8	4.8
- 부동산업	13.4	13.2	13.2	13.2
- 과학,기술,회계,관리,건축설계,엔지니어리,검증,분석	11.9	11.9	12.3	12.4
. 법률,회계,관리,건축설계,엔지니어리,기술검증,분석	4.7	4.6	4.8	4.9
. 연구, 개발	1.0	0.9	0.9	0.9
. 기타 전문 과학, 기술업	0.8	0.8	0.8	0.7
. 행정 및 지원 서비스업	5.4	5.6	5.8	5.8
- 기타 서비스업	3.4	3.4	3.4	3.4
. 예술, 연극, 창조활동	1.4	1.4	1.4	1.5
. 기타 서비스업	1.6	1.6	1.5	1.5
. 가계 도우미	0.4	0.4	0.4	0.4
공공부문	22.6	22.6	22.5	22.6
- 공공행정, 국방-의무 사회보장	7.9	7.8	7.8	7.8
- 교육업	5.7	5.7	5.7	5.7
- 보건업	5.8	5.8	5.8	5.9
- 의료원, 양로원, 사회복지사업	3.2	3.2	3.3	3.3

주: 각 산업별 창출 부가가치(경상가격 기준)의 GDP 비중임.

자료원: 프랑스 통계청(INSEE) (2014년 3월 말 기준 최신 자료)

2. 산업별 기상도 및 유망품목

가. 자동차부품

□ 최신 동향

- 총매출 감소율 둔화: '12년 $\Delta 13.4\%$ $\rightarrow$ '13년 $\Delta 8\%$
 - 중반기 완성차 판매 부진과 수출 1% 감소로 수주량 9.4% 감소
 - 수출비율 지속 증가: '11년 52% $\rightarrow$ '12년 54% $\rightarrow$ '13년 57.7%
 - 총매출의 85%가 OEM용, 나머지 15%가 AS용

- '12년 기업 수 237개로 7% 감소, 종업원 수도 79,000명으로 7.4% 감소
 - 종업원 500인 이상의 37개 기업(전체의 15.6%)이 매출의 59.3% 및 고용의 61.8% 차지
- '12년 수입(179.6억 유로) 4.5% 감소 및 수출(197억 유로) 6.1% 감소
 - 역내 거래가 수입의 80%, 수출의 71%로 높은 비중 차지
 - * 전체 교역의 역내 의존도 역시 수입의 78.2%, 수출의 69.7%로 높은 수준
- 총매출의 14.7%를 차지하는 차체 부품만 7.7% 증가로 호조
 - 총매출의 43.3%를 차지하는 엔진부품이 27.8% 감소로 가장 저조한 실적 기록
 - * 총매출의 26.8%를 차지하는 인테리어는 5.9% 감소
 - * 총매출의 10.7%, 4.4%를 차지하는 지면접촉 부품(타이어 포함)과 계측장치는 각각 8.2%, 9.2% 감소

□ 전문가 진단

- 프랑스 자동차부품생산협회(FIEV)
 - 글로벌 시장점유를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혁신 제품의 공급과 다양한 고객수요에 대비한 차별화 노력이 필수
 -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과 자동차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신뢰받는 공급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
- 현지 진출 기업 A사(윈도우 브러쉬)
 - 글로벌경쟁 시장에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인력 및 시설)과 개발제품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는 특허 등록이 기본임.

□ 2014년 전망 : 밝음

- '14년 유럽 자동차 생산이 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부품 수요 역시 4.2% 증가할 전망
- 전반적인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1.5%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AS 부품 시장이 전체 부품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수출은 유럽의 자동차 생산 증가, 경제 제재가 부분적으로 해제될 이란을 위시한 신흥국으로 수출할 CKD(자동차 조립용 kit) 등 OEM 부품 판매 회복 등의 효과를 동시에 볼 것으로 기대됨.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별화 및 혁신 제품 시장이 크게 부상할 전망
 - 스마트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임베디드 시스템 등 기술 혁신 및 차별화 제품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로 변화할 전망
- 프랑스와 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시장은 지속적인 감소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우리 기업에게는 OEM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
 - 프랑스의 한국 승용차 등록대수가 매년 약 6만대씩 증가함에 따라 A/S용 부품 수출이 지속 증가할 전망
-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및 수소전기차가 보급되면서 다양한 설비 (충전시설, 수소연료 주유시설 등)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
 - 프랑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및 수소연료 주유시설 투자 계획을 조만간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기차보다 수소전기차 시대가 더 빨리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CEA-Liten 국립연구소와 Symbio FCell社は 최근 희귀금속 사용 비중 및 양산 공정을 크게 축소한 수소 1리터당 출력 2.9kW의 세계 최소형 최고성능의 PEMFC(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을 개발, 양산 추진 중



Symbio FCell사의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임베디드 시스템(MTI 813700)

- 주차 지원시스템, 비어있는 주차장 및 여행안내 시스템, 주행속도 자동조절 시스템, 교통신호 및 교통체증 정보를 반영한 자동 주행 시스템 등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 급부상 중

* Roland Berger 컨설팅은 세계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규모가 2020년 기준 150억 유로로 현 수준보다 3배 증가 전망

○ 클러치와 그 부분품(MTI 742000)

- 한국산 차량 지속 증가, 자동차 수명 연장 및 자동변속 차량 비중 증가에 따른 A/S용 클러치 및 그 부분품 수요 지속 증가

* 對프랑스 수출('13년 850만 달러)이 2011년부터 연평균 5%씩 꾸준히 증가 중

나. 화학

□ 최신 동향

○ 유럽 화학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13년 프랑스 내 생산은 0.5% 증가

- '12년 1.5% 감소 후 '13년 3분기부터 회복세

* 무기화학은 증가, 유기화학은 2년째 감소, 특수화학은 정체

* 플라스틱 수요의 1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포장 산업의 회복이 생산 증가를 견인

○ '12년 기준 프랑스 수출 1위 산업

- 프랑스 화학산업은 매출 889억 유로 규모의 시장으로 부가가치와 교역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화학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187억 유로 규모로 전체 매출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 기여율은 0.9% 수준임.

- 3,300개 기업이 15만 5,74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비중은 90%

- 화학산업 전체 매출의 4.1%인 37억 유로가 투자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비중은 부가가치의 9% 수준

□ 전문가 진단

○ 프랑스 화학연합회(UIC)

- 나노물질 개발은 화학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술개발 경쟁이 한창임. 자동차, 건축, 화장품, 의약품, 섬유 등 많은 분야의 산업경쟁력과도 밀접한 만큼 그 중요성이 막대함.
- 나노기술은 에너지 및 원자재 절감 효과 덕분에 거의 모든 산업에 급속도로 활용될 수 있어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 이를 계기로 선진 공업국의 화학 및 관련 산업 기업들이 경쟁력을 만회할 것으로 판단함.

○ 진출기업 C사

- 프랑스는 화장품, 의약품, 영양제 등 화학 산업 주요 품목 뿐 아니라 도료 및 나노기술 제품 또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시장 진입이 수월하지 않은 편
- 그러나 한국 역시 나노기술, 대량 생산능력, EU와의 FTA 협정 체결에 따른 무관세 혜택 등의 강점을 보유, 유기 화학물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임.
- 다만, 갈수록 기술, 위생 및 환경 규정 등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면밀한 사전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신시장 개척 여건은 어려운 편임.

□ 2014년 전망 : 밝음

○ 자동차 및 포장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1.3% 생산 증가 전망

- 프랑스화학연합회(UIC)는 유기화학 부문은 정체, 무기·특수화학은 각각 0.8%,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셰일가스 개발로 생산단가를 절감한 미국 기업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유럽 기업들은 정부의 에너지 재편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탄소세로 이중 고충을 겪고 있으나 나노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품질 및 성능 향상으로 가격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고 있음.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제품의 품질,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되어
-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게 됨.

- 나노기술을 개발한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리고 있으나 개도국 기업들에게는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
- 관세장벽은 낮아진 대신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는 추세
 - 위생, 기술 규격, 복잡한 행정절차 및 자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규정이 강화되는 추세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폴리카아보네이트(MTI 214013)
 - 수입시장 규모가 1.4억 유로 수준으로 對프랑스 수출이 2년째 연속 100% 이상 증가 ('13년 316만 달러 수출)
 - * 한-EU FTA 시행으로 6.5%의 관세인하 폭만큼 경쟁국인 태국 및 미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향상
- 폴리이소부틸렌(MTI 214090)
 - 1.3억 유로 규모의 프랑스 수입시장에서 독일, 벨기에, 미국에 이어 4위권
 - 한-EU FTA 시행으로 수입관세(6.5%)만큼 가격경쟁력이 향상됨.
 - 對프랑스 수출 지속 대폭 증가세: '12년 140% 증가에 이어 '13년에는 57% 증가한 1,631만 달러 기록

다. 자동차

□ 최신 동향

- 자동차산업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국내 생산은 급감하고 해외생산은 지속 증가한 가운데 '13년 563만 9,589대를 생산, 전년대비 1.1% 증가
 - 국내 생산은 144만 5,489대로 '12년 대비 12.2% 감소
 - 국내 생산의 65%를 차지하는 푸조-시트로엥(PSA)社의 생산량은 공장폐쇄 및 통폐합 등으로 15.7% 감소한 93만 9,483대에 그쳤으며 르노社는 5% 감소한 50만 6,006대를 제조

- 유럽시장 의존도가 높은 푸조-시트로앵社は 재정위기로 큰 타격을 받아 '12년 50억 유로, '13년 23억 유로의 적자 기록
 - * 2014년 2월 19일 동사는 30억 유로 증자를 위해 중국의 동평자동차 및 프랑스 정부에 각각 14%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
- 저가 모델 생산과 프리미엄급 모델 출시 등 상반된 전략 구사
 - 르노社は 동유럽 및 북아프리카 현지 공장에서 저가 모델 생산을 확대 중
 - 푸조社は 프리미엄 시장을 목표로 DS라는 모델명을 하나의 독립된 브랜드화하려는 전략과 중국 제4공장 건설, 이란 공장 재가동을 통한 현지생산 확대 추진
 - 르노社は 전기차와 가솔린 하이브리드카, 푸조社は 디젤 하이브리드카로 저탄소차 시장 공략 추진 중

□ 전문가 진단

- 현지 진출기업 A사(승용차)
 - 프랑스 소비자가 '13년부터 지갑을 닫고 기본적인 소비에서까지 지출을 줄이고 있어 시장 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작용
- 현지 한국차 유통업체 B사
 - 최근 수년간 프랑스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이 판매 목표를 높이는 한편 혜택은 줄이고 있어 마진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음.

□ 2014년 전망 : 보통

- 프랑스 내 승용차 판매는 '14년 하반기부터 개선되어 2% 가량 증가할 전망
 - '14년 자가용과 업무용차량의 유럽 판매량은 최소 5 %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내 완성차 생산은 '13년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르노와 푸조 모두 기술·자본 제휴를 통한 국내외 자동차 생산 확대 모색
-

- (푸조) 지분 매각을 통한 증자로 국내 및 중국지역 자동차 생산량 확대
- (르노) 닛산과 공동 생산을 위한 통합 관리 부서를 설립, '16년까지 43억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중국 내 생산 및 판매 증대 등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지속적인 현금 확보를 통한 제품 개발에 주력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프랑스는 선박(요트 및 잠수함), 항공기(무인정찰기) 및 경차 등에 실험 중인 수소연료전지를 자동차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르노와 푸조가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에 무관심한 상태로 주로 연구소, 중소기업 및 에너지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음.
- 프랑스 완성차메이커들이 최근 외국 기업과의 제휴와 외국자본 수혈로 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13년 유럽 25개국 자동차 시장에서 르노시는 저가모델(Dacia) 판매 호조(24.4% 증가)로 총 판매량이 4.1% 증가한 데 비해 현대·기아차는 0.5% 감소
 - 프랑스 시장에서도 르노는 Dacia 판매 호조(11.2% 증가)로 0.8% 증가한데 비해 현대·기아차는 4.1% 감소
- 그 동안 중급 자동차 생산 판매에 주력했던 프랑스 기업들이 저가 및 프리미엄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어 프랑스, 유럽, 신흥국 중·대형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수출 둔화가 우려됨.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SUV(MTI 741190)
 - 승용차 판매의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SUV 차량 판매는 지속 증가
 - * '13년 33만 3,005대 판매로 전년대비 11.6% 증가, 시장점유율 18.6% 기록
 - * Macan(포르쉐), Qashqai(닛산), Dacia Duster(르노)의 판매 및 점유율 약진
- 하이브리드 자동차 (MTI 741160)
 - '13년 자동차 판매 5.7% 감소에도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67.7% 증가

등 최근 2년간 243% 증가세 시현

- * '13년 하이브리드카는 4만 6,785대가 판매되면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2.6% 점유
- * 토요타 Prius가 프랑스 시장을 석권하는 가운데, 아직은 보급 초기단계로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 다대

라. 항공우주

□ 최신 동향

- 항공기 생산은 수주 및 인도량이 양호함에 따라 '13년 3% 증가
 - 생산지수는 '12년 146에서 '13년 151로 상승
 - 에어버스 판매는 '12년 588대에서 '13년 620대로 5.4% 증가
 - 비즈니스용 항공기 판매는 '12년 66대에서 '13년 70대로 6.1% 증가
 - 다른 기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소비가 적은 프로펠러 항공기(ATR)의 경우 유가 인상에 힘입어 판매량이 '12년 64대에서 '13년 80대로 25% 증가

□ 전문가 진단

- 에어버스(Airbus)
 - 기존 모델의 경우 2013년과 같은 생산물량을 유지할 예정. A380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A350의 생산라인 개선에 집중할 계획
 - A380의 경우에도 아랍에미리트항공 주문(50대) 등으로 연간 30대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14년 항공기 관련 부품 조달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이며 특히, 해외 하청생산 확대를 통해 생산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 2014년 전망 : 밝음

- 우주장비 및 비즈니스용 항공기 판매 호조 기대
 - 생산지수는 '13년 151에서 '14년 154로 상승할 전망
 - 비즈니스용 항공기 산업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수요 증가로 호조 예상
-

- 우주선 산업은 지속적인 수주 증가로 호황 예상
 - * 아리안 우주선 38대 등 총 52대 수주
- 유지보수(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작업량도 지속 증가 전망
- 항공 승객 수는 6% 증가할 것이나 화물량은 현상 유지할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기록적인 민간항공기 수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 하청생산 능력 부족으로 해외생산 투자 및 하청생산, 수입 비중이 확대될 전망
- 이는 우리 부품업체에게는 수주 및 수출 증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임.
 - * 에어버스社は 해외수주 증가 대비 공급능력 부족의 주요 요인인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청업체 인력 영입을 추진했는데, 이는 하청업체들의 인력난을 야기하며 부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역효과 초래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A350용 동체 부분품 및 날개 부분품 (MTI 747290)
 - 동 기종 주력 생산전략에 따라 동체 및 날개 부분품의 주문이 증가할 전망
- A320용 동체 부분품 및 날개 부분품 (MTI 747290)
 - 동 품목 對프랑스 수출은 '13년 4,373만 달러로 전년대비 155% 급증
 - 수주 및 인도 계약이 당초 예상을 넘어섬에 따라 對한국 하청 생산도 지속 증가할 전망

마. ICT·가전

□ 최신 동향

- IT제품 호조에도 불구하고 통신장비 및 전자제품 시장은 부진
 - '13년 전자제품 매출 전년대비 3% 감소
- 산업용 제품과 가정용 제품 간 희비 교차

-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용 제품의 경우 융·복합 제품의 증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가계 소비 침체로 가정용 제품의 판매는 하락

□ 전문가 진단

- 현지 바이어 A사(대형 전문 유통체인)
 - 최근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가 지속 증가했는데 지난해 일본 제품의 마케팅 강화(엔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봄)로 일부 제품의 경우 마케팅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 아직까지는 한국 유명 브랜드 제품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신기술 제품 및 ICT 융·복합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주도하는 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현지 진출기업 D사
 - 소비 저하로 일반 소비재 수요 감소가 우려되나 백색가전, 저가 모바일 폰 등 저가 시장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여 연간으로는 현상 유지가 기대됨.
 - LED TV를 포함한 가전제품 분야 일부 신기술 제품의 성장이 기대되며, 단품 위주에서 탈피하여 고기술·고기능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모색할 계획임.

□ 2014년 전망 : 보통

- IT산업의 영역이 전자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 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전국적인 4G 서비스를 위해 통신사들의 인프라 관련 투자가 이어질 전망으로 관련 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
 -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질 전망
 - 부가세 인상을 필두로 한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짐에 따라 저가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반면 혁신 기술 및 디자인을 도입한 프리미엄 제품 구매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중간 가격대 제품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
-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태블릿이 PC를 대체하며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노트북을 포함한 PC 수요가 지속 감소 중이며, 저가 스마트폰 출시 영향에 주목 필요
 - 통신망 불충분으로 판매가 둔화했던 4G 스마트폰 판매가 이동통신사들의 4G 통신망 투자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쟁업체들이 저가 4G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제품 판매가 감소할 우려가 있음.
 - 반면에 태블릿 PC 판매 증가는 우리 기업에 수출 증가 기회가 될 전망
- 전자제품 판매 부진으로 UHD TV 및 곡선화면 TV 등 신제품 가격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우리 기업의 영업실적 및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 예상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프리미엄 4G 스마트폰(MTI 812130)
 - 미국, 중국 및 프랑스 등 경쟁업체들이 중·저가 4G 판매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판매가 부진한 상태
 -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산이 시장을 장악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
- 스마트시계(MTI 827100)
 - 초기 제품에 이어 신기술 및 헬스케어 시스템을 결합시킨 신규 제품이 나오면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과 고령층으로 소비층이 확대될 전망
 - 저가 스마트 시계들이 출시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구매력이 약하여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바. 철강

□ 최신 동향

- 철강 소비는 '12년에 이어 '13년에 더욱 감소
 - 기업투자 동결로 기계 생산과 금속 가공업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

- 非주거용 건축업 또한 산업 프로젝트의 연기로 피해를 입음.
-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자동차와 파이프 부문으로 두 자리 수의 감소율 기록
-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는 4.5% 감소했으며 재고는 낮은 수준을 유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200만 톤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내수보다 수입이 더 감소했기 때문
- 프랑스 인접 국가 제철공장들의 시설정비로 인해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프랑스 업계가 이와 관련된 생산 수요를 흡수하면서 국내 철강 생산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년 1% 소폭 감소에 그침.

□ 전문가 진단

- 프랑스 철강협회(FFA)
 - '13년 유럽연합의 철강 생산이 6.5% 증가한데 비해 프랑스는 0.5% 증가에 그치는 등 아직 회복세로 진단하기에는 시기상조
 - * 주철 분야의 생산 증가(7.3%)에도 불구하고 전기 분야의 생산이 10% 감소한 데 기인
 - 프랑스는 EU 3대 철강 생산국(EU 총생산의 9.3%차지)이며 역내 교역에 집중하고 있어 제3국과의 교역규모가 아주 작은 편임.
 - 수입량의 98% 이상을 EU에서 수입하지만, 한국은 제3국으로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물량을 EU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간 교역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현지 진출기업 E사
 - 주 수요처인 자동차산업 침체로 판매가 감소세였으나 올해에는 유로존의 경기가 호전되고 자동차 시장도 증가세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판매 호전이 기대됨.

□ 2014년 전망 : 밝음

- 전체적인 프랑스 철강 생산은 '14년에 2% 증가할 전망
- 경기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철강 소비는 실수요 분야에서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

- 호조세를 보이는 항공기, 에너지, 철로 분야에서는 철강 수요 증가 예상
- 농·식품, 화학, 자동차 분야에서의 설비투자 회복 및 수출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 예상
- 금속 가공분야에서의 수출 증가 및 내수 소폭 회복에 의한 철강 수요 회복 전망

- 가격은 중국의 수급 균형과 연계되어 있는 철광석과 코크스⁴⁾의 가격에 따라 결정될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주 수요분야이자 '13년 철강 수요 감소의 주요인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어서 철강 산업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 기회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프랑스는 역내 거래를 선호, 제3국산 수입 확대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주석도금한 평판압연제품으로서 두께가 0.5mm 미만의 것(MTI 613600)
 - 한국은 4대 수입대상국
 - '13년 對한국 수입이 57% 감소하며 515만 달러에 그쳤으나 총 수입 자체가 26% 감소하는 등 수입수요 침체가 대세였음.
 - '14년에는 수입수요 증가에 힘입어 한국산 수입 역시 증가할 전망
- 페로알로이(MTI 618120)
 - 한국산 수입 규모가 '13년에 83% 감소한 254만 달러에 그쳤으나 '12년까지는 1,500만 달러로 11대 수입국이었음.
 - 올해 철강 수요, 수입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한국산 수입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

4) 석탄을 건류하여 만들어진 탄소질의 고체 연료. 주물용 코크스 해탄(骸炭)이라고도 함.(네이버 제공 금속용어사전)

사. 전자부품

□ 최신 동향

- '13년 시장 4% 성장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개선으로 전반적인 가계소비 증가가 예상됨.
 -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와 관련된 부품 수요도 증가 전망

□ 전문가 진단

- 프랑스 인쇄전자조합(AFELIM)
 - 전자제품이 단품 위주에서 고기술, 고기능제품의 결합에 의한 시스템 제품으로 시너지 경제효과를 창출함에 따라 능동소자⁵⁾ 전자부품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임.
 - 유기 LED가 미래 산업을 주도할 전망이어서 프랑스 기업들도 중소기업지원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소재 및 시스템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
 - 한국, 일본 등 전자부품 주요 생산국들은 이미 OLED 기술 제품들을 출시하는 등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어 프랑스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양국 간의 경제 또는 산업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제3시장 확대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지 진출기업 H사
 - 프랑스-이탈리아 전자기업 STMicroelectronique社를 비롯하여 Merck社, Arkema社와 같은 유럽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어 현지 시장 확대가 수월하지는 않으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이들 기업들과 협력하는 등 사업 영역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 2014년 전망 : 밝음

5) 전기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기회로의 구성 요소. 전원 공급장치는 포함되지 않고 트랜지스터 등이 이에 해당

- 거시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전자부품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미 성장세에 접어든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탄력을 받아 크게 증가할 것이나 올해 예정된 Rousset 지역 소재의 LFoundry 공장 폐쇄로 인한 생산 감소에 의해 다소 상쇄되어 프랑스 전체적인 전자부품 생산량은 '13년과 유사한 4%대 증가세를 보일 전망
- 태블릿 PC 시장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첨단기술 및 스마트 기능을 가진 전자부품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여 전자부품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전자부품 산업은 OLED와 같은 유기 바이오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어서 동 분야가 발달한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단순한 수출보다는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 다각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함.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OLED 소자(MTI 836120)
 - 우리 기업들이 이미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한 분야로 향후 동 분야 핵심부품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할 전망
- LED 소자(MTI 831390)
 - 조명기기, 자동차 및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시작된 수요가 공공 조명시설을 위시한 조달시장으로 확산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요 증가 추세

아. 기계 장비

□ 최신 동향

-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이 '13년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해 1% 성장에 그침.

- 특히 공작기계 부문(-9%)과 특수용도용 기계 부문(-5%)의 감소폭이 두드러짐.
- 건설 및 자동차 등 주요 분야의 주문은 약진 양상을 보였지만 내수는 일부 산업에서만 증가함.

□ 전문가 진단

- 프랑스기계산업협회(FIM)
 - 건설업이 수년간 침체 상태인 탓에 건설장비 시장 전망은 밝지 않으나 철강, 항공기, 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되찾으며 산업용 기계 수요가 증가, 전체 수요는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U 내에서 한국산 기계 및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프랑스에서도 한국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지 바이어 G사
 - 한국산 기계는 제3국 시장 진출용으로 수입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는 테스트 문제 등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취급 계획이 없음.
 - 펀칭기, 천공기용 부품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을 경우 수입할 계획으로 한국 업체와 접촉 중임.

□ 2014년 전망 : 밝음

- '13년 말 나타난 수주 회복이 '14년 1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기계생산협회(Fim)에 따르면 내수 시장 및 해외 특히, 독일로부터의 공작기계 수주가 증가하여 연 4%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그 외 에너지, 항공기, 철로 분야에서의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농산물 가공업, 자동차, 설비재 분야의 설비투자 전망이 밝아 기계생산이 전반적으로 호전될 전망
- 정밀기계의 경우 R&D 수요 증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학기기는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 확대에 이어서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고기술 제품 개발 및 가격의 안정화로 경쟁력을 높인 업체들은 격화된 경쟁 환경 속에서도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당분간은 생산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건설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대신 철강, 에너지, 항공 등 여타 산업이 활기를 띄면서 산업용 기계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일부 자주식 기계 및 부품 수출에 국한된 우리 수출 대상을 산업용 기계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임.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프레스용, 편칭용 부품(MTI 753100)
 - 한국산 기계 부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對프랑스 수출이 1월 중 9배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인기
 - 중국 및 터키 등 주 경쟁국 제품에 비해 품질이 양호하고 한-EU FTA 시행으로 2.7%의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3대 수입국으로 부상
- 기타 자주식 기계(MTI 725190)
 - 한국산 수입이 '12년 전년대비 45% 증가한 데 이어 '13년에는 291% 증가한 216만 달러를 기록, 우리나라가 6대 수입국으로 부상
 - 체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및 영국이 주요 경쟁국으로 최근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및 영국산 수입은 대폭 감소하고 미국 및 한국산 수입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

첨부 1. 유럽 국가별 '14년 경제 기상도 및 특이사항

국가	'14년 경제 기상도	전망 및 특이사항
독일		- GDP 성장률 전망치 1.8% - 고용, 소비, 수출, 물가 등 주요 지표 안정세 - 설비투자, 민간소비, 소매판매 모두 증가
영국		- GDP 성장률 전망치 2.4%로 확실한 경기회복세 - 전체 실업률은 안정적이거나 내국인 실업은 악화 - 금리 인상시 기업투자 감소 우려 - 신흥시장 개척으로 수출입 지속 증가세
프랑스		- GDP 성장률 전망치 1% - 소폭의 경기회복세로 수출입 소폭 증가 - 실업률과 증세로 소비심리 회복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
네덜란드		- GDP 성장률 전망치 0.75% 성장으로 마이너스('13년 -0.8%) 탈출 - 수출, 투자 중심으로 회복 기대 - 고실업률과 내수부진은 지속, 정부 개혁에 대한 지지도 낮아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벨기에		- GDP 성장률 전망치 1.4% - 완전한 경기회복세로 수출입, 투자 증가 - 소비심리는 다소 회복될 전망이나 실업률 악화가 문제, 총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스위스		- GDP 성장률 전망치 2.3% - 재정위기에도 EU 평균 성장률 상회, EU 경기회복으로 수출입 활기 - 안정적인 내수 및 낮은 실업률은 장점이나 스위스화 강세는 가격경쟁력 악화 요인
오스트리아		- GDP 성장률 전망치 1.7% 성장 - 내수, 기업투자, 수출입 등 주요 지표 회복 예상 - 고용악화로 실업률은 증가
핀란드		- GDP 성장률 전망치 1% 초반 - 미국, EU 경기회복으로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나 내수 위축으로 수입은 감소 우려 - 소비심리는 점차 회복중이나 실업률과 세금 인상으로 다시 위축될 우려 상존
스웨덴		- GDP 성장률 전망치 1.6% - 법인세 인하, 민간소비, 정부지출 확대, 내수 진작을 위한 저금리 유지 등이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
이탈리아		- GDP 성장률 전망치 1.1% - 정부에 비해 외부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며 회복세가 느릴 것으로 전망 -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가 경기회복의 관건 - 잇따른 총리 교체 등 정치 불안이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
스페인		- GDP 성장률 전망치 0.7%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가시화 - 수출호조가 내수침체 보완, 실업률은 여전히 높아 구매력저하에 따른 소비회복은 미진 - 기업투자 개선이 기대되나 자금조달 환경 악화 가능성 상존 - 고실업률, 재정적자, 신흥국 경제 불안정 등이 변수
그리스		- GDP 성장률 전망치 0.6%로 7년 만에 플러스 성장 - 재정적자 축소, 수출입은 보험세, 고정투자는 감소폭 축소, 실업률 소폭 감소 전망 - 고실업률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소비회복에는 시일 소요
불가리아		- GDP 성장률 전망치 1.8% - EU 경기회복으로 교역 증가 예상, 재정적자-공공부채 안정세, 실업률 소폭 하락 - 정치안정과 EU 기금으로 기업투자 개선
루마니아		- GDP 성장률 전망치 2.2% - 주요 경제지표 양호, 수출 성장세, 소비심리 호전 - 소비세 인상으로 물가 상승 예상
체코		- GDP 성장률 전망치 1.4% - 코로나와 약세와 EU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본격 확대, 가계소비 증가 - 재정건전성도 양호, 인센티브 축소로 FDI는 감소 우려
헝가리		- GDP 성장률 전망치 2%, 산업생산, 투자 증가로 뚜렷한 성장세 - 재정적자, 공공부채 모두 기준치(3%, 60%) 미만 유지 - 서유럽 경기회복세와 포린트화 평가절하가 수출증가 견인
폴란드		- GDP 성장률 전망치 2.9% - 고용 증가로 민간소비 증가, 즈워터화 약세로 수출 증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투자 활성화 -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 수준 유지
크로아티아		- GDP 성장률 전망치 0%대, EU 기금 유입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 재정적자-공공부채 과다로 긴축재정이 불가피, 높은 실업률, 기업투자 및 소비심리도 여전히 부정적

주)  = 맑음  = 구름 약간  = 구름 많이  = 흐림

첨부 2. 유럽 국가별/산업별 경기전망 및 수출 유망품목

국가	'14년 경기전망	주요 산업	전망 및 특이사항	수출 유망품목
독일	- GDP 1.8% 성장 - 고용, 소비, 수출, 물가 등 주요 지표 안정세 - 설비투자, 민간소비, 소매판매 모두 증가	자동차/자동차부품	- 전기차 보급 확대로 배터리 수요 증가 - 노후차량 교체 수요 - 중형 및 SUV 차량 선호 추세 지속 - 글로벌화로 아시아시장 중요성 증가 - 안전/전장부품/IT기술 부품 수요 증가	- 카스테레오: 한국산 전장부품 관련 수요 꾸준히 증가 - 기타축전지: 글로벌 소싱 확대, 한-EU FTA에 따른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향상
		석유화학	- 경기회복으로 성장세로 전환 -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수요 증가	- 에틸렌중합체필름: 한국산에 대한 평가가 좋으며 한-EU FTA로 가격경쟁력 제고 - 안료: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로 對독일 수출 증가
		ICT	- 소프트웨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기 부문 높은 증가세 - IT 융합기술 적용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잠재력 다대	- 메모리 반도체: 모바일기기 수요 강세 - 기타보조기억장치: 인터넷의 생활화로 메모리카드, USB 등의 제품 수요 급증
		전기전자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상승 기대 - 유럽, 중국 대만 기업과의 경합 치열 - 브랜드 이미지 지속 개선 필요	-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월드컵 특수 등에 따른 수요 증가세 지속 - LED조명: 백열전구 금지, 친환경 절전형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섬유	- 고부가가치 산업용 기능성 섬유 수요 꾸준히 증가 -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가격경쟁력에 민감	- 폴리에스테르섬유: 한-EU FTA로 가격우위 발생 - 기타합성섬유: 폴리우레탄직물 등 고품질 한국산 섬유에 대한 수요 꾸준히 증가
		기계	- 경기는 전반적으로 양호할 전망 - 고부가가치 초정밀/초고속/초절전 기기 등 기술혁신에 따른 제품 차별화 중요	-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한국산이 인지도, 기술력 면에서 상승세 - 금속절삭 가공기계: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의료기기	3%대 소폭 성장 - 고품질 의료기술, 웹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유망	-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우수, 공공조달 납품 기회 확대 - 분석시험기부품: 한-EU FTA 효과로 수출 증가세
영국	- GDP 2.4% 성장 - 확실한 경기회복세 - 전체 실업률은 내국인 실업은 악화 - 금리 인상시 기업투자 감소 우려 - 신용시장 개척으로 수출입 지속 증가세	자동차	- 중소형 모델 강세 지속 - 정부지원, 친환경성, 경제성 등으로 경차 및 전기차 성장 - 법인 구매가 개인 구매를 앞섬	- 소형자동차,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배기량 차량 수요 높음.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 교체용자동차부품: 각종 부품 교체 수요 증가 지속
		ICT	LTE 단말기 등 무선전화기, 스마트기기용 콘텐츠 시장 전망 밝음	대화면 스마트폰: 한국산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기계	- 신용국 수요, 제조업 부흥에 따른 공장기계류 등 수요 확대 -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용 부품 강공기계 수요 꾸준	금속가공 공장기계: 한국산이 가격경쟁력, 제품 정확도, 내구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됨
		건설	- 주택시장 활성화, 대형 인프라건설 사업으로 경기회복 기대 - 건설장비/기계류 수입 증가 추세 속 소형장비 선호	굴삭기: 도심 공사현장 접근 용이, 한국산이 경쟁국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

		제약/의약품	- 신약 특허 만료로 복제약시장 높은 성장세 - 공공조달 시장 중요성 증대 - 비용절감을 위해 아시아산 직수입 선호 증가	바이오시밀라: 개발 완료 및 시판중인 한국 제품 다양
		에너지	- 경기침체로 축소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회복은 경기에 따라 유동적 - 태양광은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회생 조짐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완제품: 가정용 태양광발전 시장 급부상으로 예전 판로 회복 기회
		섬유	- 실속구매 트렌드로 저가형 제품 인기 - 중국산 반덤핑 조치로 한국제품의 반사이익 기대 - 의류 제조사의 폴리에스터 직접 수입 사례 증가	의류시장용 원단류: 한국산 이미지가 좋음
프랑스	- GDP 1% 성장 - 소폭의 경기회복세로 수출입 소폭 증가 - 실업률과 증세로 소비심리 회복은 경기가 풀리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	자동차부품	- 유럽 내 자동차 생산 증가로 부품 수요 4%대 증가 예상 - A/S 부품이 전체 부품 수요 증가 견인 - 스마트카 부상으로 기술혁신 및 차별화 제품이 수요를 창출할 전망	- 임베디드 시스템: '20년 시장규모가 현 수준의 3배인 150억 유로일 것으로 추정 - 클러치와 그 부품품: 한국산 차량 증가, 차량 수명연장 등으로 수요 지속 증가
		화학	- 자동차, 포장산업 회복 등으로 1%대 생산 증가 - 나노기술 발전으로 제품 품질, 기능 및 성능 향상 - 기술규격, 행정절차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은 강화되는 추세	- 폴리카아보네이트: 한-EU FTA로 경쟁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향상 - 폴리이소부틸렌: 한-EU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 증가세
		자동차	'14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판매 개선 - 중급 모델에 주력하던 프랑스 기업들이 저가 및 프리미엄 시장에 적극 진출	- SUV 자동차: 위기 속에서도 판매 꾸준히 증가 -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동차 수요 급감에도 판매 증가, 보급 초기 단계로 시장확대 가능성 다대
		항공우주	- 우주장비, 비즈니스용 항공기 판매 호조 - 프랑스 내 하청생산 능력부족으로 해외생산 및 투자 증가	- A350용 동체부분품 및 날개부분품: 동 기종 주력 생산으로 관련 부품 수요 증가 - A320용 동체부분품 및 날개부분품: 한국산 수입 급증 추세
		ICT/가전	- IT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시장 규모 역시 증가 - 가전제품은 저가제품,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대비 중가 제품 수요 감소	- 프리미엄 4G 스마트폰: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 선전 - 스마트시계: 신기술, 헬스케어 시스템 등이 결합, 소비자층 확대
		철강	- 자동차 등 실수요 분야에서 제한적인 성장세 예상 - EU 역내 거래가 선호되어 제3국 수입 확대에는 시일 소요	- 주석도금한 평판압연제품으로서 두께가 0.5mm 미만의 것: 수입 수요 증가에 따른 한국제품 수요 증가 - 페로알로이: 수입 수요 회복에 한국제품 수요 증가
		전자부품	스마트기기 수요 증가에 따른 전자부품 수요 확대	- OLED 소자: 한국산이 기술력과 생산력을 이미 보유한 제품군 - LED 소자: 조명기기,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요 증가 추세
		기계 장비	- 철강, 항공기, 에너지 분야 경기회복으로 산업용 기계 수요 증가 - EU 내 한국산 기계 및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 프레싱용, 펀칭용 부품: 한국산 기계부품 인지도 증가, 한-EU FTA로 가격경쟁력 제고 - 기타자주식기계: 최근 한국산 수입이 증가하며 6대 수입국으로 부상

네덜란드	- GDP 0.75% 성장으로 마이너스('13년 -0.8%) - 수출, 투자 중심으로 회복 기대 - 고실업률과 내수부진은 지속 - 정부 개혁에 대한 지지도 낮아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신재생에너지	-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추진 중이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관련 기술 교류 관심 증가 - 에너지 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가능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 확산	- 태양광패널: 태양광패널의 그리드 패리티 도달 및 중국산 패널 가격 인상으로 수출 가능성 확대 - 스마트미터: 미터기 교체 수요로 향후 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
		정유	- EU 역외 석유 완제품 공급 확대 추세 - EU 경기회복으로 네덜란드 석유제품 수입, 재수출 모두 확대	유탄유: 유럽 자동차시장 회복으로 수요 증가, 한국기업의 경우 고부가 유탄유 제품에 집중하여 높은 마진을 확보 가능
		식음료	- 장기침체 속에서 비교적 선전했으나 내수위축으로 실속형 소비 두드러짐 - 싱글족 증가, 건강과 맛을 갖춘 제품 선호, 평범하거나 중간 가격대 제품 입지는 좁아지고 있어 차별화가 관건	- 수프, 소스, 오일: 한국 음식 중에서는 고추장, 불고기 소스 등이 초기 진출에 적합 - 손님 접대용 핑거푸드: 손님 초대가 잦으며 이 때 외국음식을 즐길기는 경향이 높음 - 길거리 음식 및 포장 한식 프랜차이즈: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1~2인 가구의 구매가 잦은 편
		조선	- 초호화 요트시장, 유지보수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할 전망 - 네덜란드 업체들은 연안운행, 준석, 대형 요트, 특수목적 해상선박 등 틈새시장에 주력	- 다목적 화물선: 성장잠재력 다대 - 교체용 부품: 유지보수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 고급요트 부품 및 인테리어제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네덜란드 업체에 제품 공급으로 성장 모색 가능 - 디젤엔진 및 부품: 한국산 인지도가 높은 편 - 친환경선박: 친환경 해운에 대한 요구 강화로 점진적으로 수요 증가 예상
		물류	- 화물처리량 안정세 속에 1%의 근소한 수송량 증가 예상 - 도로사용 대신 내륙운하, 철도, 복합운송 비중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물류 운송 효율성을 위한 다각화된 수송시스템 추진	- 물류서비스업: 유럽 물류 중심지로 관련 기업 진출에 최적지 - 철도기자재: 친환경적인 철도 운송에 대한 관심 증가, 한국 철도 및 지하철 기술 수준이 높아 다양한 제품 공급 가능 - 배기가스 오염제어장치 부착 물류 운송차량, 하이브리드 내륙수로용 선박, LNG 선박, 전기추진 선박 등: 지속가능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 - 항만 터미널 운영시스템, 고객사 시스템과 연동된 물류 시스템 등 IT소프트웨어: 물류 관련 기술의 혁신성과 효율성의 중요도 증가
		ICT	-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관련 하드웨어 부문을 필두로 성장 - 사무용 IT용품은 매출 감소 추세 - 웨어러블 관련 제품 부상	클라우드 서비스 및 동 서비스 이용에 최적화된 IT 통신기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전망
		바이오/생명과학	- 혁신적인 의학기술 발달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꾸준히 성장할 전망 - 민관학 협력체계가 공고 -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능력 외에 보유기술에 대한 마케팅 능력 필요	- 경구나 피부전달 시스템 등 바늘 없는 대안 치료제: 어린이 대상 치료제의 진출 가능성이 높음 - 당뇨 관련 바이오 치료제: 당뇨환자 증가에 따른 치료제 개발 수요 증가
벨기에	- GDP 1.4% 성장 - 완전한 경기회복세로 수출입, 투자 증가 - 소비심리는 다소 회복될 전망이나 실업률 악화가 문제 - 총선 결과에 따른	화학	- 세계 최고 기술력, R&D 투자, 유럽 경기회복으로 생산, 수출입 등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 - 한국산 화학 완제품 수출과 벨기에산 중간재 수입 활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기존 합성 플라스틱에 대한 대체 수요 발생,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품질 개선 및 응용 분야 확대로 수요 증가
		의료/바이오	기술 진입장벽이 높고 경기변동에 덜 민감해 '14년 전망도 밝은 편	제네릭 의약품: 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가 낮고 가격이 높아 복제약에 대한 수요 및 구매 급증

	불확실성 존재		• 의약품 복용량은 증가 추세이나 복제약 출시로 구매금액은 감소	
		물류	• 유럽 경기회복에 따른 해상화물 등 수출동량 증가 • 지속적인 물류 인프라 개선 노력으로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기대	• 재고(Stock)관리를 위한 RFID 장비 및 시스템: 물류 인프라 확장 계획으로 수요 증가
		정유·석유화학	• 경기변화에 민감한 분야로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 증가 기대 • 업계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산업화 전략 수립	• 윤활유 및 1차 석유가공제품: 경기회복에 따른 승 증가
		ICT/전기전자	•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수요는 증가 • 재정위기로 가격 중요도가 높아져 합리적 가격에 참신한 제품이 각광받을 전망	• 태블릿PC: 스마트폰과 함께 필수품으로 인식되면서 수요 꾸준히 증가, 중저가 틈새시장 유망
		건설	• 경기회복세, 주택 리모델링 수요, 공공 인프라 건설 등으로 다소 회복 •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15년도 이후	• 세라믹 타일: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중급 제품으로 합리적 가격과 품질을 갖춘 제품 진출 가능
스위스	• GDP 2.3% • 재정위기에도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으며 EU 경기회복으로 수출입 활기 • 안정적인 내수 및 낮은 실업률은 장점이나 스위스화 강세는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	기계/전자/금속산업	• 對유럽 의존도가 높아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주문 증가 예상	• 기계부품: 경기회복에 이은 기계 수요 증가로 부품 수요 역시 동반 상승, 비용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 증가 • 인쇄회로: 기계산업 발달로 평소 수요가 꾸준하며 경기회복으로 점차적인 수요 확대 예상
		의료·제약 및 헬스케어산업	• 건강 관련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본격적인 성장 기대 • 제약산업 발달에도 의약품 가격이 높아 향후 복제약품 등 저렴한 의약품 구매가 증가할 전망	• 의약품: 한국 의약품 관련 수요가 꾸준, 복제약 진출 가능 • 의료용진단기: 테스트마켓으로 고가 제품을 대체할 저렴한 가격대의 우수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시계	• 중국 등 신흥국과 북미지역 수요 증가로 수출 확대 • '스위스 메이드' 인증 도입 추진중	• 시계부품: 경기회복으로 시계 및 관련 부품 수요 증가 • 손목시계: 소비심리 개선으로 수입 수요 활성화 기대
오스트리아	• GDP 1.7% 성장 • 내수, 기업투자, 수출입 등 주요 지표 회복 예상 • 고용악화로 실업률은 증가	자동차/자동차부품	• 신차 시장의 성장세 전환이 가시화되며 관련 부품시장도 급격히 회복될 전망 • 한국산 차량 증가에 따른 관련 A/S 부품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	• 차량용 배터리: 한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확대, 품질 및 기술력 인정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 기타 자동차부품: 교체용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
		(신재생)에너지	• 환경에 대한 관심,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꾸준한 성장세 예상 • 태양광 모듈, 수력발전 관련 설비 등의 분야에서 한국산 수요 발생	• 태양광패널 및 관련제품: 정부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 열펌프: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관심 증가로 판매 확대 예상
		ICT/전기전자	• '12년 회복 이후 5% 이상 성장세 기록중 •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로 대폭 성장 기대 • LTE 사업자 선정에 따른 수입을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할 방침	• LED조명/모듈: 백열전구 사용금지 조치, LED 조명 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 위성방송수신기: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 중이며 월드컵 특수로 올해 수요가 급증할 전망
		스포츠/레저용품	• 스포츠·레저에 관심이 많은 국민성으로 연평균 2~3%의 꾸준한 성장세 기록, '14년 전망도 밝은 편	• 자전거, 스키헬멧: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증가, 헬멧 착용 의무화 등으로 관련 제품 수요 급속히 증가 • 기능성스포츠의류: 기능성 제품 수요가 높은 가운데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 수입수요가 높음

핀란드	- GDP 1% 초반대 성장 - 건축기조는 유지될 - 미국, EU 경기회복으로 수출은 증가할 수 있으나 내수 위축으로 수입은 감소 우려 - 소비심리는 점차 회복중이나 실업률과 세금 인상으로 다시 위축될 우려 상존	식음료 산업	- 합리적 구매 성향으로 판매 단가가 인하되어 1%의 소폭 성장 - 아시아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불고기소스: 인기를 끌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반조리 소스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김치통조림: 김치 효능에 대한 관심 증가
		(신재생)에너지	- 풍력, 바이오에너지를 필두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지속 성장 - 발전시설 전체보다는 특정 부품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이 현실적	- 풍력터빈: 유럽산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 바이오에너지플랜트: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높아 관련 설비/제품에 대한 수요 꾸준히 증가
		의류, 섬유산업	- 소비심리 개선으로 '13년 대비 3% 성장 - 계절적 특성으로 기능성 제품 비중이 높은 시장	- 기능성 아웃도어의류: 중년층의 수요가 높고 유럽 진출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 높음 - 스카프, 모자 등 패션 액세서리: 한류 영향으로 청소년층에서 관련 제품 선호도 증가
		ICT/전기전자	핵심산업이나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시장 규모 5% 가량 축소	- 핵심부품류: 시계, 휴대전화용 리튬배터리, 안테나 등 고품질의 핵심부품 수요 꾸준 - 소프트웨어: 한국산 게임, 그래픽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증가
스웨덴	- GDP 1.6% 성장 - 법인세 인하, 민간소비, 정부지출 확대, 내수진작을 위한 저금리 유지 등이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	자동차부품	- 자동차시장 회복으로 완성차 및 부품 수요 증가 - 원가절감 압박으로 공급선 전환 움직임	- 기어박스: 공급선 전환 움직임,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 프레스금형: 한국산 품질 제고에 따른 인지도 개선 - 오일필터: 오일필터 교체 수요의 절반 가량을 수입에 의존, 수입 수요 꾸준
		건설업	- 주택건설 활성화, 대형 건설프로젝트 재개 시장 전망이 밝음 - 각종 건설장비 및 기자재 수요 증대	- 건설장비: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일본산, 한국산 수입이 소량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각종 건축자재: 건설경기 회복으로 각종 내외장재 수요 증가
		보건/의료	의료분야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시장으로 소형 자가측정 장비, 응급조치 기기를 중심으로 시장 수요 증가	- 혈당계: 당뇨환자 수가 지속 증가 중이며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심장제세동기: 심장마비 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장소에 비치되고 있어 수요 지속 증가
		보안장비	폭력 및 강력사건 증가 등으로 보안관련 제품/장비 수요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CCTV: 설치 영역 확대로 수요 증가, 한-EU FTA로 한국산 가격경쟁력 개선
이탈리아	- GDP 1.1% 성장 - 정부에 비해 외부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며 회복세가 느릴 것으로 전망 -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가 경기회복의 관건 - 잇따른 총리 교체 등 정치 불안정이 경기회복의 최대 불안요소	철강	- 경제성장폭이 미약하여 시장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 현지 철강 수급 어려움으로 수입 수요는 증가 예상	냉연강판 및 열연강판: 동 부품에 대한 산업계 수요는 증가하는 가운데 현지 수급 불안정으로 수입 수요 지속 증가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시장이 보조금 축소, 공급과잉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으나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는 '14년 이후 회복할 전망 - 에너지효율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강화 제도 및 정책은 지속 추진될 전망	소형 풍력터빈: 초기 투자비용과 리스크가 낮고 정부 인센티브가 보장되어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수요 증가가 예상됨
		자동차부품	- 완만한 회복세 기대 -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부품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	- 전장제품: 지능형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 타이어: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모두 갖춘 한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
		ICT	0.3%의 소폭 성장 기대	태블릿PC: 속도, 휴대성, 기능성을 앞세워 시장 확대

			소프트웨어, ICT 솔루션, e-컨텐츠 등의 분야 전망은 밝음	스마트폰: 프리미엄 신제품, 보급형 모델 보급으로 한국제품의 선전은 계속될 전망
		화학섬유	'14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 탈출 - 이탈리아는 고가의 천연섬유에 강점을 보유, 합성섬유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수요가 꾸준한 편	- 나일론직물: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 폴리아미드단섬유: 제조업 부활 등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의료/제약	- 의약품 생산, R&D 투자, 해외시장 점유율 등에서 선두주자 -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등의 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경기전망도 좋음	- 제네릭의약품: 15%대 성장이 기대되는 등 이탈리아를 위시한 선진국 복제의약품 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 기회 증대 - 바이오의약품: 가격이 높은 탓에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갖춘 한국산으로 시장진출을 모색할만함
스페인	- GDP 0.7% 성장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가시화 - 수출호조가 내수침체 보완 - 실업률은 여전히 높아 구매력저하에 따른 소비회복은 미진 - 기업투자 개선이 기대되나 자금조달 환경 악화 가능성 상존 - 고실업률, 재정적자, 신흥국 경제 불안정 등이 변수	자동차/자동차부품	- 유럽 시장 회복과 정부 구매지원책으로 내수 증가,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 차세대 모델의 스페인 내 양산 등의 요인으로 시장 활성화 예상 - 자동차 시장 활성화로 부품 시장 역시 동반 상승	- 자동차배터리: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완성차 생산 증가에 따른 배터리 수요 확대 - 브레이크패드: 한-EU FTA에 따른 한국산 가격경쟁력 제고로 관심 증가
		신재생에너지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 지원 대폭 삭감으로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음 - 국내 발전시설 건설이 위축되면서 현지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속화	- 태양광패널: 상당수 스페인 EPC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이들에 대한 패널 공급 추진 필요 - 인버터, 발전기: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업들에 대한 제품 공급 기대
		ICT	- 각종 IT 기기 판매 증가, 스마트폰 및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급속한 성장 기대 -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소프트웨어시장도 활성화될 전망	- 스마트폰케이스: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액세서리 판매 동반 상승, 기기손상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수요 증가 -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따른 수요 증가
		식음료	- 경기회복으로 동 분야 매출도 회복세로 전환 기대 - 인스턴트식품 소비 증가, 아시아산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트렌드 - 자체브랜드 제품 성장세가 두드러짐	- 인스턴트라면: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취급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 - 장류: 아시아식 소스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그리스	- GDP 0.6%로 7년 만에 플러스 성장 - 재정적자 축소, 수출입은 보험세, 고정투자는 감소폭 축소, 실업률 소폭 감소 전망 - 고실업률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소비회복에는 시일 소요	자동차부품	- 완만한 수요상승이 기대되며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도 증가할 전망 - 한국 부품에 대한 평판이 좋고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로 수출 전망 밝음	자동차배터리: 전량을 수입에 의존, 경쟁국 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대등한 품질로 바이어들의 수입 수요 증가
		ICT/전기전자	- 서서히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일 소요 - 공공 프로젝트 발주 증가, 내수회복이 침체 탈출에 기여	- 태블릿PC: 수입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으로 수요가 꾸준할 전망 - CCTV: 생계형 범죄 증가에 따른 보안 관련 장비 수요 증가
		해운	-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해운 물동량이 증가, 주요 선주들의 선박 구입 증가로 이어질 전망 - 친환경 소재 부품 수입이나 이를 활용한 선박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기대	선박평형수처리 국제 규정에 따라 친환경 선박평형수처리 장치 수입 수요 증가
		에너지	긴축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로 에너지절감 제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수요 증가 전망	- 스마트 미터기: 에너지절감을 위해 동 제품 설치 프로젝트가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제품 수요 발생 - LED조명: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수요 증가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

불가리아	- GDP 1.8% 성장 - EU 경기회복으로 성장률 상승, 교역 증가 예상 - 재정적자-공공부채 안정세, 실업률 소폭 하락 - 정치안정과 EU 기금으로 기업투자 개선	합성수지	- 합성수지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음료용기 및 포장용기 수요 증가로 수입수요도 지속 성장할 전망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12년 한국이 반덤핑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한국산 수입 급증
		자동차부품	- 자체 자동차 브랜드가 없어 해외 업체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애프터마켓 형태 - 경기침체로 신차 시장이 축소된 반면 중고차 판매가 확대되며 부품 수요 증가	브레이크 패드: 중고차 점유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 기대
		섬유	- 주로 유럽 의류업체의 OEM 방식으로 생산 - 중고가 의류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고급 직물을 중심으로 수입	- 폴리에스테르섬유: '13년 한국 제품 수입이 전년대비 157% 증가 - 편직물: 한-EU FTA에 따른 관세(8%) 철폐로 가격경쟁력 제고
		의료	- 정부가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지지부진한 상황 - 민간병원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적극적	X선 및 방사선기기: 가격대비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13년 한국산 수입이 전년대비 약 20배 급증
		식음료	- 불가리아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 - 과일, 채소 용기로 주로 캔을 사용	석도강판: 통조림 캔 사용 증가로 원재료인 석도강판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세
		가전	- 유럽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시장규모 회복 - 한국 제품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냄	에어컨: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대폭 상승
루마니아	- GDP 2.2% 성장 - 주요 경제지표 양호 - 수출 성장세, 소비심리 호전 - 소비세 인상으로 물가 상승 예상	자동차부품	- 중고차 수입 확대와 노후차량 증가에 따라 자동차 A/S 부품 수요가 꾸준히 성장 - 한-EU FTA 발효 이후 자동차부품 바이어들이 제조업체와의 직거래에 관심 표명	자동차 A/S 부품: 열악한 현지 도로사정으로 소모성 부품의 수요가 높음
		의료/제약산업	-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 성장세 - 의료시설을 현대화를 위해 첨단기기 수입수요 증가	진단용 영상기기(초음파검사장비, 진단장비, 영상장비): 전체 의료기기 수입시장의 약 30% 차지
		환경/플랜트	- EU 환경지침 준수를 위해 상하수도 시설 보급 확대 추진 - EU 기금('14~'20) 수혜 프로젝트 내용이 '14년 중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 도시 폐수처리, 플랜트용 장비: EU 도시폐수처리지침(UWWTD) 이행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 수요 발생 - 음용수처리 플랜트: EU 음용수지침(DWD) 이행을 위한 관련 프로젝트 수요가 높음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발전은 '13년에 급성장 '14년 시행된 녹색인증 인센티브 축소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완만한 성장 예상	- 태양광패널 및 모듈: 태양광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로 최근 수입액이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 풍력발전터빈 및 타워: '14년 약 600개의 풍력발전 타워 및 터빈수요 예상
체코	- GDP 1.4% 성장 - 코로나화 약세와 EU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본격 확대, 가계소비 증가 - 재정건전성도 양호 - 인센티브 축소로 FDI는 감소 우려	자동차부품	1,2차 벤더 부문에서 유럽의 허브 역할을 담당 - SUV 차량의 인기가 높아 이에 따른 부품수요 증가 예상	- 개스킷, 와셔, 그밖의실: 소형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주형틀 및 주형베이스 등: 현대-기아차 생산에 사용됨
		ICT	'17년까지 꾸준히 성장 예상 - 최근 데이터 규모 증가에 따라 데이터 보호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 광통신망장비: 정부 차원에서 광통신망 인프라 확대 추진 중 - 데이터 저장장치: 클라우드 서비스 보편화로 기업들도 데이터 저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전기전자	- 산업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기전자산업도 '13년 말 성장세로 반등 - 건물 및 산업자동화 부문의 수요 증가 예상	LED 가로등: EU의 백열전구 판매 금지 결정으로 수요 상승
		에너지산업	'06년 이후 에너지산업은 매년 20% 성장 - 특히 천연가스차량(NGV) 시장은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됨	- CNG 압축기: EU 에너지지침 및 정부 지원으로 인해 CNG 인프라 확대 전망 - CNG 키트: '13년 CNG 차량 판매가 전년대비 46.5% 증가하면서 관련 부품 수요도 증가 예상
헝가리	- GDP 2% 성장 - 산업생산, 투자 증가로 뚜렷한 성장세 - 재정적자, 공공부채 모두 기준치(3%, 60%) 미만 유지 - 서유럽 경기회복세와 포린트화 평가절하가 수출증가 견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물류기반을 바탕으로 유럽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로 부상 - 자동차 부품 매출도 회복세	-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내용년수 증가로 주요 부품의 교체수요 증가 - 전자기클램프: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한국산 제품 수입 급증
		건설	'13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 - 국가 주도의 철도, 원전 프로젝트로 건설시장 활성화 예상	- CCTV: 은행,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보안부문 투자 강화 - LED조명: EU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감형 전구 수요 증가
		통신산업	- 스마트폰 증가, LTE 서비스 개시로 활기 - 선불형 휴대전화(MVNO) 판매 증가가 주요 성장요인	- LTE모뎀: LTE 시장 확대에 모뎀, 라우터 등 관련 장비 수요 증가 - 휴대전화액세서리: 휴대전화 판매 증가로 주변기기 시장도 성장세
		의료/제약	- 정부정책으로 치과 의료관광 선도국으로 부상 - 의료기기 시장은 꾸준한 성장 예상	- 영상진단용 의료기기: EU 기금 투입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증가 - 치과용 의료기기: '18년까지 꾸준한 시장 성장 예상
		신재생에너지	- 바이오매스, 풍력발전 비중이 높음 -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 확대 기대	바이오매스 파워플랜트 및 파이프라인: 바이오매스를 지역난방에 활용하기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 수요 발생
폴란드	- GDP 2.9% 성장 - 고용 증가로 민간소비 증가, 저위터화 약세로 수출 증가 -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 수준 유지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투자 활성화	자동차부품	승용차 부문 성장은 주춤하는 추세이나 밴, 트럭 생산 증가에 따라 자동차부품 시장은 호황	- 에어백: 수요 지속 확대 - 라디에이터: 최근 한국제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
		에너지	- 화석연료 의존도가 85%에 달해 원자력, 셰일가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 -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 대출 등 지원정책 마련	-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EU 지침에 따라 '20년까지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장착 의무화 - 변압기: 전력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
		ICT	- 시장 규모는 향후 지속 확대될 전망 '디지털폴란드' 프로그램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추진	- 광섬유: 인터넷망 구축사업에 따라 광섬유 수요 증가 - 전자책리더: 폴란드인들은 평균 독서시간이 주당 6.5시간에 달하며 전자기기에도 친숙함
		가전제품	-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유럽의 가전제품 생산기지로 급부상 - 백색가전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될 전망	- 세탁기 부품: 현지생산 확대에 부품수입 증가 - 태블릿PC: 행정업무 디지털화에 따른 공공수요 발생
		항공	-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이후 항공 생산기지로 부상 '17년까지 항공산업 R&D에 1억 2,5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	전자 항공시스템 부품: 항공전자 분야 R&D 투자확대에 따른 시스템 및 부품 수요 증가
		의료기기	- 유럽 재정위기와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의료기기 및 소모품 시장 축소 '14년 이후 EU 기금을 통한 의료기기 구매 확대 기대	디지털 X-ray 카메라 및 MRI스캐너: 보건의료 부문 현대화에 따라 첨단장비 수요 급증

크로아티아	- GDP 0%대 성장 예상 - EU 기금 유입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 재정적자·공공부채 과다로 긴축재정이 불가피 - 높은 실업률, 기업투자 및 소비심리도 여전히 부정적	정보통신	'09년 이후 IT 시장 규모는 감소세 '13년 EU 가입 이후 EU 기금 유입 기대로 회복 조짐	- ITS 시스템: 복합운송 ITS시스템, 대도시 교통통제시스템 등이 유망 - 전자정부시스템: EU 기금의 주요 수혜사업이 될 전망
		관광	- 크로아티아의 대표 산업 - 아시아 관광객 증가, EU 국가와의 국경 출입 원활화로 '14년에도 성장 예상	- 각종 레저용품: 해안 관광지용 수상 레저용품 유망 - 한국식품점 및 식당용품: 크로아티아 내 한국식당 및 식품 부재
		보안	- 재정위기의 여파로 치안이 악화되어 보안장비 수요 증가 - 최근 기업 및 일반 상점에서도 보안 관련 제품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 디지털도어록: 기존 시건장치 대비 편리한 비밀번호 방식의 디지털도어록이 인기 - CCTV시스템: 사무용 건물의 중앙통제시스템 도입 증가
		수자원 관련산업	- 공공하수도, 폐수처리 시설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향후 3~5년 내 수자원 처리시설이 대폭 개선될 예정	폐수처리 시스템: 폐수처리 시설 개선에 EU 기금 지원이 집중될 전망



작성자

- | | |
|-------------|--------|
|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강환국 과장 |
| ◆ 런던무역관 | 장명철 과장 |
| ◆ 파리무역관 | 김희경 과장 |
| ◆ 선진시장팀 | 이연주 과장 |
| ◆ 선진시장팀 | 이동훈 대리 |



Global Market Report

유럽 경기전망 및 산업별 기상도 - 서유럽(1)

발 행 인 | 오 영 호
편 집 인 | 김 성 수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4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